Weekly 공감

2011.10.26 NO.131
gonggam.korea.kr

한·미 FTA 밖을 보면 답이 보인다 P17~37

남한강 자전거길

1,692km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있는 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어디를 가도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라

서울 한강과 여주 이포보를 연결하는 27km의 남한강 자전거길

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광진교
잠실철교
잠실대교
서울
팔당역
팔당대교
봉인터널
하남
남양주
양수역
북한강 철교
양수대교
팔당호
경기도
신원역
아신역
양평역
양평 문화원
양평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NAVER +Mobile 4대강

한·미 FTA는 성장의 안전판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의회가 협정서명 4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화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고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은 이처럼 경색된 국제무역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가진 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 FTA만큼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한·유럽연합(EU), 한·칠레, 한·인도 등 앞서 발효된 FTA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보여온 수출 실적과 경쟁력을 보면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은 기존 수출 증가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수출 5위 국가로 발전해 선진국 진입이란 탄탄대로를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 업계 간 투자, 기술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제치고 선점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35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보여온 수출 실적과 경쟁력을 보면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은 기존 수출 증가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수출 5위 국가로 발전해 선진국 진입이란 탄탄대로를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또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퍼센트, 일본의 62퍼센트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산성에 입각해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노사나 노노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름길이 바로 FTA이다.

최근 침체일로를 체험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과 물가 앙등 등으로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G

Contents

NO.131 2011.10.26 통권 232호

일러스트 · 유현호

기획특집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개방은 경제성장의 미래를 가르는 키워드다. 국력이 힘차게 뻗어나간 나라를 보면 예외 없이 개방 정책을 취했다. 우리의 '문'도 점점 열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장에 따른 결과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GDP 기준 세계 경제영토의 61퍼센트가 우리의 땅이 된다. 이에 따라 교역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늘며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와 안보 등 경제 외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표지 이야기 황금빛 들녘을 흐르는 고요한 강을 지나는 배 한 척. 배가 남긴 길다란 궤적이 마치 떨치지 못한 추억의 흔적 같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영산강 '3경(景)' 석관정에서 바라본 가을 영산강이다. 사진 · 이훈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0.2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2

48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한·미 FTA는 성숙한 경제체질을 만드는 기회

130호 집중기획 중 한·미 FTA의 경제효과 기사를 읽고 일자리 35만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며 대외 무역수지도 크게 늘어나 여러 모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농민과 노동자, 중소기업이 다소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이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한 단계 성숙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도형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한식의 세계화는 곧 현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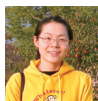
한식요리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130호에 소개된 뉴욕 한식당 '단지'의 셰프 김훈씨 기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음식의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맛과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지에 맞게 개량한 메뉴와 인테리어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세워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 선배에게 조언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창규 (대전시 중구 목동)**

꿈을 이루는 꿍따리 응원단 파이팅

3년 전 허리디스크로 좌절하고 있을 때 강원래씨가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데, 130호 '꿍따리 유랑단 강원래 단장' 기사를 읽으니 반갑고 새로운 도전에 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꿍따리 유랑단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의 무대가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당신이라면 꼭 한 번 꿍따리 유랑단의 공연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누빌 꿍따리 유랑단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영희 (전남 목포시 복만동)**

스피드에 대한 뜨거운 열정 샘솟아

작년에 F1 대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 고향인 영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워낙 생소한 스포츠였던 데다가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9호에 실린 기사를 보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첫 대회라 잡음이 많았는데 올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년 대회에는 고향에 가서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류수영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6개 보 36경 지도 너무 좋았어요"

김지선 (회사원·서울 도봉구 방학동)

130호 〈위클리 공감〉은 어땠나요?

"무심코 책을 집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표지가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싶어 펼쳐 보니 4대강 16개 보 36경 지도였어요. 게다가 4대강 자전거길도 잘 나와 있었고요. 친절하게도 자르는 선까지 표시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당장 잘라서 남자친구 차 안에 넣어 두었어요. 이 지도 좀 보고 여행 좀 다니라고요. 물론 저도 따라가야죠. 130호는 한동안 보관하면서 읽어야겠어요."

가장 도움이 된 기사는?

"단연 지난주 이슈였던 한·미 FTA 비준안 기사였죠. 인터넷을 따로 검색하지 않고도 이번 FTA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효과까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니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의견도 생겼고요.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성과가 눈으로 보이겠지만 지금으로선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때쯤 되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이웃들이 생각나지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번 겨울, 그들을 위한 복지계획이나 행사, 지원책 같은 것들 말이에요.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곳이나 직접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주어도 좋겠지요. 이번 겨울은 이웃과 함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알 림

산업보안을 재미있게 표현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산업보안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업보안은 기업체와 연구소의 보안능력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보안'이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포스터와 웹툰을 통해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12월 6일 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 11월 25일까지
참가 대상 | 제한 없음(개인 및 4인 이하 팀 가능)
공모 내용 | 업무 시 산업보안 방법, 111 산업보안 신고 상담, 기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개성 있고 시사성 있는 내용을 포스터나 웹툰으로 표현
참가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작품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불가)
시상 내역 | 각 부문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등 총 20점 시상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contest ☎ 02-3489-7014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음악제'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은 계층, 종교, 이념, 지역, 세대 간 사회갈등 등의 벽을 뛰어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존중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1 한마음 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들을 초청함으로써 문화 나눔을 실천한다. 또한 음악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황병기 명인, 국립국악관현악단, 전제덕 등의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한편 음악제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공연 일시 | 11월 12일 오후 5시, 11월 13일 오후 3시, 7시
공연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내용 | 주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1부 선법합창 공연 스님 합창(자유인의 한마음, 그 마음 그대로), 본원 혼성합창단(원통 속을 벗어나려면 등), 해외 지원 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2부 재능기부 공연 황병기 명인(침향무), 이화첼리(헝가리 무곡 5번), 이춘혜, 이승묵(넬라 판타지아, 해수관음의 빛), 전제덕, 이화첼리(리베르탱고) 등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 031-470-3100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되는 것.
3. 갑곶돈대 · 광성돈대 · 광성제단 · 초지진 · 덕진진 등이 있어 '호국의 보루'라고도 불리는 곳.
4. 국을 끓이는 데 넣는 재료.
6. 감기 조심하세요~.
7. 행사 때 대열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사람.

세 로

1. 개발도상국을 줄여서?
2.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는 것. "미국시장 ○○ 등의 효과가 있는 한미FTA 비준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3. 다음 중 10월 22일 개방축제가 열리는 보는? 창녕합천보, 백제보, 강정고령보, 죽산보
5. 이름이나 단어가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 말이야, 이름이 뭐더라? 키 크고 공부 잘했던 그 동창 말일세."
8. 혜택을 받음.

〈Weekly 공감〉 129호(10월 1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물레길 **3** 백미 **4** 보대 **6** 이중창 **8** 영암
세로 **1** 물미 **2** 길모퉁이 **3** 백제보 **5** 대조영 **7** 창제

〈Weekly 공감〉 12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광석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기영천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김경주 · 대구시 서구 비산5동
남아경 · 전남 여수시 종화동
송정아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최선의 복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배정

'4대 핵심 일자리 사업'과 함께 일할 능력·일할 여건도 개선

2012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다. 일자리 예산은 전년에 비해 6.8퍼센트 증액된 10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린다.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일할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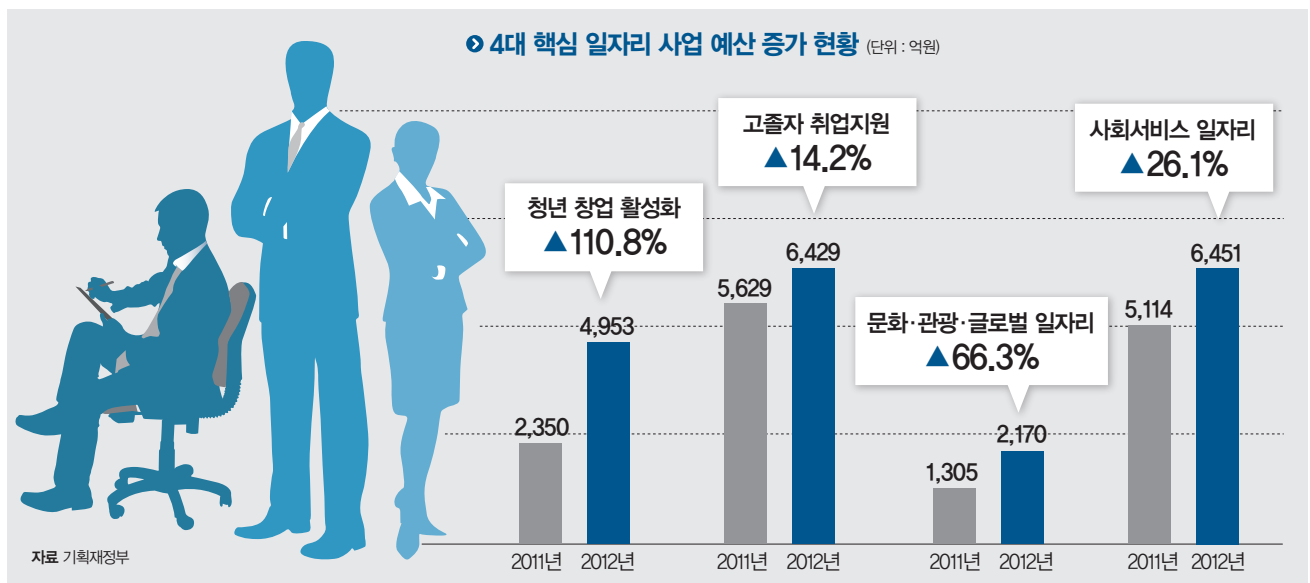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들 말한다.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는 복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고용 없는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2012년 정부의 예산안은 고용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용이 살아나면 소득과 삶의 여건이 개선되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된다. 또 노동의 질과 양이 개선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얻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을 촉발시킨다. 정부의 구상은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양적으로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실을 다진다. 질적인 측면으로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근간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조4천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약 40퍼센트 늘려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 40퍼센트 늘려 2조원 편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아이디어 창업과 창업 초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민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조정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졸자를 위한 지원은 시기별로 재학중, 구직중, 취업중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재학중 지원은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의 취업지원관을 현재 1백 개에서 1백50개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시설을 활용한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향상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근로 여건 개선이라는 두 축으로 짜였다. 올해에 비해 6.8퍼센트 증액된 10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시킨다.

졸업 후에는 취업이 용이하도록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고졸자 비중을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도 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5배 늘린다. 취업을 한 후에는 재직자 특별전형,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정원을 5백명에서 1천명으로 늘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인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 분야들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성장이 기대돼 미래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린다. 먼저 창의적인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영화, 음악, 뮤지컬, 만화 등 문화콘텐츠와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2천3백46명, 4백67억원에서 8천5백99명, 1천2억원으로 늘린다.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한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의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도 올해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 가족들에겐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할 여건과 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2012 일자리 예산의 핵심이다. 먼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사회보험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실업

분야별 일자리 사업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11년	2012년(안)
청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3만2천명	4만명
	창조캠퍼스	20개 대학	40개 대학
	청년인턴 취업지원금	1백만원	2백만원
	글로벌 청년취업	–	5백명 (신규)
여성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중소기업 부설)	월 80만원	월 1백만원
	새일센터	90개소	1백개소
노인·베이비부머	노인일자리	20만명	22만명
	50+ 새일터 적응지원	–	2천명 (신규)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지원	–	6백명 (신규)
근로빈곤층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월급 1백만원)	월 5만5백원	월 3만3천7백원
	취업성공패키지	5만명	7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행급여 (교육·의료)	–	연 2백52만원 (신규)
	자활사업	6만5천명	7만명
장애인	장애인 복지일자리	6만5천명	7천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급여	월 20만원	월 26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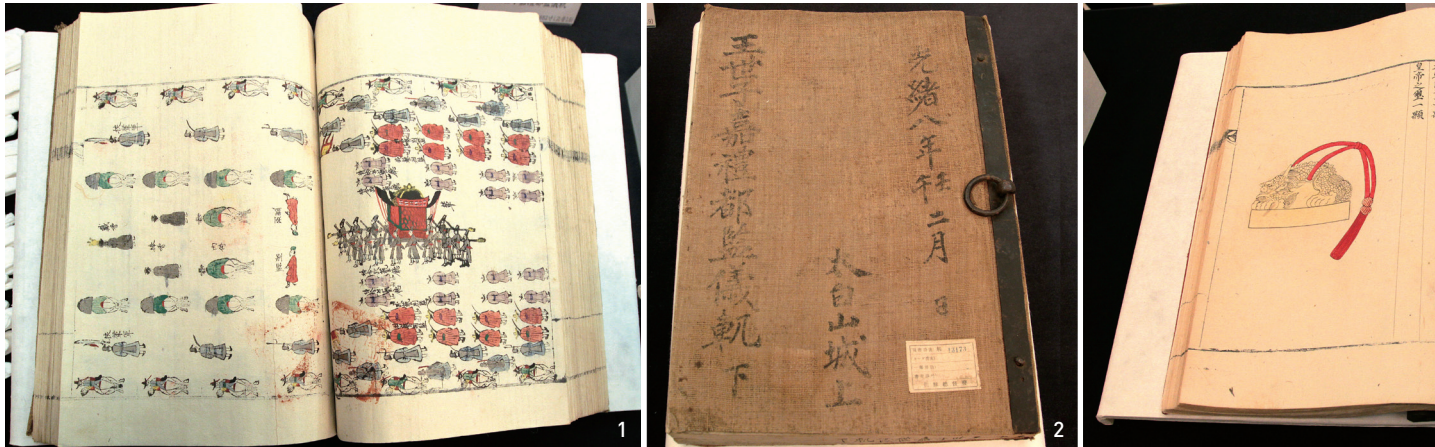
이나 노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백20퍼센트 이하의 보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3분의 1씩 분담한다. 해당 대상은 전국 1백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신규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도 확대한다. 현재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3년간 연평균 2백52만원 상당의 교육과 의료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에서 알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4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의 강도도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지난 10월 19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조선왕실의궤 5책을 우리나라 정부에 반환했다. 왼쪽부터 차례로 왕세자가례도감의궤(1,2) 대례의궤(3) 정묘어제(4,5).

이번엔 일본에서… 조선왕실의궤 5책 환국

일제 강점기 수탈 후 日궁내청 보관 나머지 1천2백 책도 다음 달 돌려받기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90여 년이 걸렸다. 지난 10월 19일 일제 강점기에 수탈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실의궤 1천2백5책 중 5책이 공식 반환됐다. 이번 반환은 '기증'이 아니라 완전한 '반환'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부는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나머지 1천2백 책의 도서도 11월 중 돌려받기로 했다.

이번엔 '90여 년 만의 귀환'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안겨주었던 일본에서의 귀환이다.

지난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궤 등 조선왕실도서 5책을 직접 반환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수탈 도서의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노다 총리가 가져온 5책의 도서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시문집인 〈열성어제〉 중 정조 편인 〈정묘어제(正廟御製)〉 2책과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와 황제 즉위 과정을 담은 〈대례의궤(大禮儀軌)〉, 순종이 왕세자 시절 순명황후 민씨와 올린 결혼식을 기록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 2책 등 3종이다. 원래는 〈정묘어제〉 대신 〈홍재전서〉 2권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동되었다.

노다 총리는 "나머지 도서도 적절한 시기에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머지 도서 1천2백 책은 늦어도 11월 중 반환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환 대상 도서에는 조선왕실의궤 81종 1백67책과 1906년부터 1909년 사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반출한 77종 1천28책 중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반환된 11종 90권을 제외한 66종 9백38책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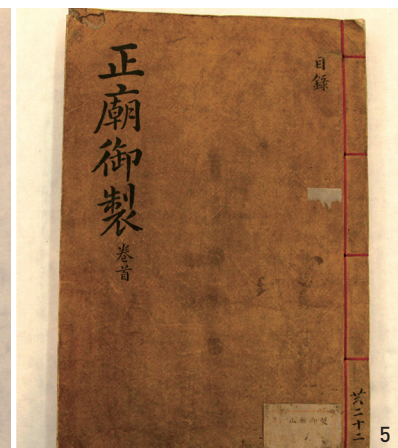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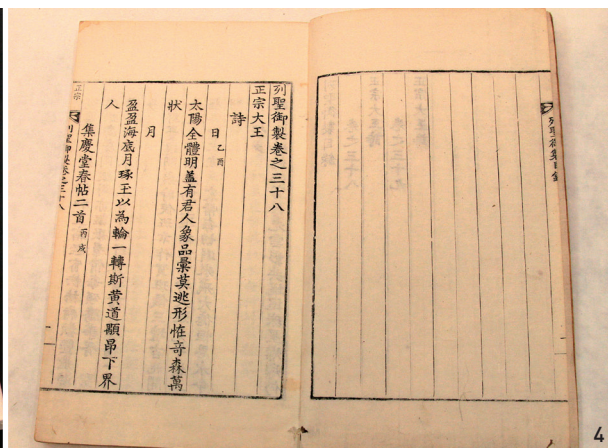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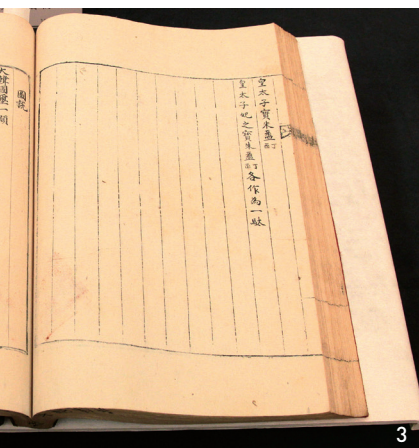
4년간 반환운동… 기증 아닌 반환에 큰 의미

조선왕실의궤가 완전히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4년여 반환운동의 결과다. 일제 강점기이던 192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의궤'를 빼돌려 일왕궁에 바쳤다. 오대산 월정사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는 이후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욕적인 역사를 품은 채 일본 궁내청에 숨겨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1년께 우리나라 서지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도서의 존재만 알렸을 뿐 반환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조선총독부의 합법적인 기증'이라며 반환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

4

5

그러던 2006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가 주축이 되어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도쿄대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학술교류란 취지에서 실록 47책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9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를 꾸려 반환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은 경술국치 1백년을 맞는 해이기에 의궤 반환 문제가 한·일 간 외교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었다.

원래 소장처인 오대산 귀향엔 시간 걸릴 듯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부분도 환수운동을 전개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결국 4년의 반환운동 끝에 2010년 간 나오토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천2백5책의 궁내청 도서를 한국으로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조선왕실의궤가 완전히 반환될 예정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귀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평창군, 월정사 등은 의궤와 실록이 원래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유네스코의 협약과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환국하는 의궤와 이미 돌아온 실록은 모두 오대산 사고본이다. 당연히 의궤가 원래 보관되었던 곳으로 돌아와야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다.

반면 의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향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최명희 강릉시장은 "의궤 등이 중앙의 박물관에 소장된다면 수많은 유물 중의 하나로 의미가 축소돼 그 가치를 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래 있던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의궤 등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어 전시 교육하면 의궤와 실록은 오대산의 단 하나의 기록문화재로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G

글·손수원 기자

조선왕실의궤란

국가 · 왕실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책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을 말한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리며 2007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의궤'는 의식(儀式)과 궤범(軌範)을 결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다. 의궤는 왕이 열람하기 위한 '어람용'과 보관을 위한 '분상용' 등이 있는데, 지난 6월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가 어람용이고, 이번에 일본에서 반환된 조선왕실의궤 오대산본은 대부분 강원도 월정사의 오대산 사고에 있던 분상용이다.

책(冊) 종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세는 형태상 단위.
권(卷) 주로 고서에서 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단위.
예컨대 '목민심서는 48권 16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48가지의 내용을 16개의 책에 담았다'란 뜻이다.

박경아 기자

10월 22일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한강 이포보 수중정원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리허설 장면. 오른쪽 사진은 이포보 수변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장승들.

체험하고… 관람하고… "4대강 즐기세요"

10월 22일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가져… '4원 생중계'로 전국이 한 무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보의 공식 개방행사가 10월 22일 4대강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단순히 와서 구경하는 행사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관람하고 즐기는 행사로 열려 4대강살리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마련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지어진 16개보(洑)의 공식개방을 알리는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가 10월 22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계를 대표하는 보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가 열린 곳은 ▲한강 이포보(경기 여주군)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광역시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 등 4곳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한강 이포보 행사에 참석했다. 금강 공주보에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영산강 승촌보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는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이 각 지역 자치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개방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는 '4원 생중계'를 통해 방송되면서 전국이 같은 무대가 되는 행사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한강 이포보를 중심으로 KBS 한국방송을 통해 오후 6시부터 50분간 전국

박경아 기자

연합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가 열린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의 전경. 백제 무령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형상화했다.

에 생중계됐다.

이번 행사는 크게 ▲시민참여와 체험 중심의 사전행사 ▲지역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축하공연이 이루어지는 식전행사 ▲4대강살리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 이포보 행사에 참석

이날 오후 1시부터 개최된 사전행사는 문화예술, 체험, 수상레저, 친환경, 전시 등 5개의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이 달라진 강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수계별 특성을 살려 펼쳐졌다.

우선 4개 수계에 공통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와 연계한 대한민국 강(江)놀이, 친환경 희망교환소, 4대강 사진전,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강 해피투어 등이 열렸다. 공통 프로그램 외에 수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들이 개최됐다.

한강 이포보에서는 윈드서핑 대회 및 체험, 카약·카누 체험행사 등 수상 레포츠 시연과 제8회 연합회장배 전국 씨름대회, 한강 사랑 가족 걷기 대축제, 인간동력 자전거 체험 등 이포보 주변의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금강 공주보에서는 고마나루 수변무대와 공주보, 주변의 역사유적지 등을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금강 걷기대회, 공주시 연합 풍물패가 펼치는 길놀이인 새물결 한마음 한마당 등이 마련됐다.

영산강 승촌보에서는 과거 영산강을 운행하던 고대 선박을 복원한 왕건호 기념운항과 승선체험, 황포돛배 승선체험 등 체험행사와 노적봉 강강술래단과 나주시 풍물패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강놀이가 열렸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는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먹거리 장터, 문화가 흐르는 우륵교, 라이트 벌룬 희망메시지 작성 등의 행사가 개최됐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식전행사가 열려 각 수계별 지역문화와 연계해 지역 예술인,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강 이포보에서는 송파 산대놀이 길놀이와 밴드 봄여름가을겨울,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금난새)의 축하공연 등

허재성 기자

서경리 기자

1 영산강에서 공식 개방행사가 열린 승촌보.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 사이를 잇는 승촌보는 호남평야의 쌀알을 상징화하고 있다.
2 승촌보 수변공간을 산책하고 있는 가족.
3 낙동강에서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가 열린 강정고령보. 가야금을 형상화한 12계단의 고정보 위로 강물이 흐르고 9백54미터에 이르는 공도교 중앙에 위치한 탄주대가 보인다.
4 강정고령보의 아이스하버식 어도. 폭은 약 12미터, 길이는 약 1백40미터에 이른다.

이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금강 공주보에서는 풍물패의 길놀이, 지역민 밴드 공연, 가수 장윤정씨 등의 축하공연이 열렸으며, 영산강 승촌보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타악 넌버벌 퍼포먼스, 가수 김혜연씨 등 지역 출신 가수의 축하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또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는 대가야 관악단 공연, 창작뮤지컬 〈낙동강 어머니의 강〉, 가수 설운도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공통 프로그램에 이어 수계별 축하공연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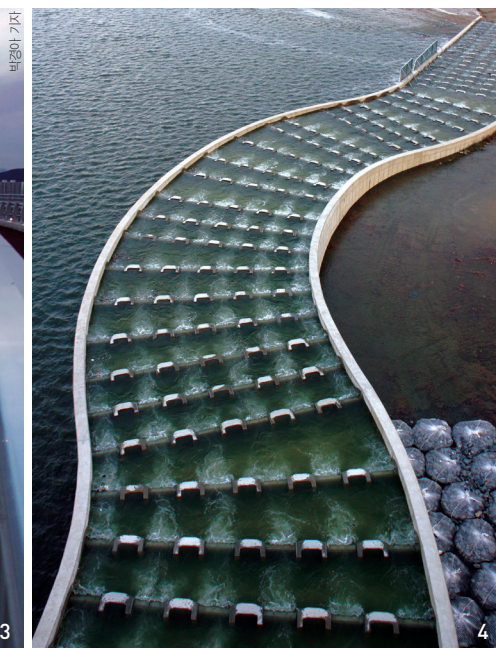
공식행사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개최됐다. 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해외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축하메시지가 서막을 열었다. 이어 한강 이포보를 시작으로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로 이어지는 릴레이 보 개방 퍼포먼스로 '4대강 새물결'의 흐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상징성 있게 전달됐다.

보 개방 퍼포먼스 이후에는 4개 수계 1천7백명의 합창단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대합창과 불꽃쇼를 통해 화합의 장을 연출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명의 지휘 아래 4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합창이 이뤄지는 무대였다.

이날 공식 개방행사가 개최된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보 주변은 4대강 16개보 중에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강 이포보는 16개보 중 가장 아름다운 보로 꼽히는 보이다. 보에 비상하는 백로와 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보 앞으로 조성된 수중광장은 여름철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3

4

특히 주변으로 오토캠핑장, 축구장, 야구장, 자전거길 등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고, 각종 희귀 동식물 서식처(당남지구)와 아름다운 초지, 이포 습지, 부처울 습지 등은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나들이 코스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포보 주변에 조성된 30만 평 저류지는 올 여름 유례없는 비에도 매년 물에 잠기던 여주 일원을 안전하게 지켜 4대강살리기의 효과를 여실히 증명해 낸 바 있다.

금강 공주보는 백제의 무령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주변은 곰과 나무꾼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담긴 고마나루와 웅진사, 공산성, 송산리 백제 고분 등 전통적 금강의 모습을 복원한 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됐다. 공주보 수상무대는 이미 백제문화제 등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낙동강 8개보도 11월 말까지 순차 개방

영산강 승촌보는 호남평야를 상징하는 '생명의 씨알'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주변에는 왜가리, 중대백로 등 철새 서식환경, 어류 산란장, 설치류, 파충류 서식지 등을 조성해 보 일대가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보가 한눈에 보이는 호가정, 서창나루터, 황룡강 철새 서식지와 연계한 자전거 코스 등은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고대 후기 가야시대의 지역특성을 살려 디자인했다. 보 기둥은 옛날 전함 모양을, 우안 고정보 구간은 악성 우륵의 가야금을 상징화한 12계단으로 만들어졌다. 고정보 오른쪽 끝에는 물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 다른 음이 들리도록 설계된 물풍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이후에는 낙동강 보 개방행사들이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잇따른다. 10월 29일에는 함안창녕보(경남 함안군, 창녕군), 11월 5일에는 상주보(경북 상주시), 11월 10일에는 칠곡보(경북 칠곡군), 11월 12일에는 창녕합천보(경남 창녕군, 합천군), 11월 15일에는 낙단보(경북 의성군), 11월 26일에는 달성보(대구 달성군)에서 개방행사가 개최되어 4대강 보 개방행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안시권 개방행사지원단장은 "'4대강 새물결 맞이'라는 행사명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 강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 경제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새물결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편의시설, 접근 교통 등도 세심하게 챙겨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4대강 콜센터 ☎1577-4359
4대강 이용 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장재헌 이포보 현장소장

"아름다운 '수중정원'서 문화공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명품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포보 건설을 담당한 한강살리기 사업 현장 사무소(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의 장재헌 현장소장(대림산업)은 이포보 개방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장 소장은 얼마 전 이포보가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포보가 명품 보임을 널리 인정받은 거 같아 기뻤다고 말했다. 여주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포보 설계는 보다 아름답고, 특성 있고, 기능성이 뛰어난 보로 만들기 위해 대림산업 사장까지 직접 참여해 가며 20번이나 수정됐다고 한다.

장 소장은 이포보의 자랑으로 아름다운 '수중정원'을 꼽았다. 직경 1백10미터, 수심 50~80센티미터의 둥근 보름달 모양의 수중정원은 9개의 수문으로 강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수심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포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4대강살리기 사업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포보로 많이 오셨습니다." 장 소장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반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있었던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김순자 현장 식당 조리사

"마음고생 했어도 요즘 한강 보면 보람 느껴요"

"다들 마음고생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밖에 나가 한강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한강살리기 사업 현장사무소 식당에서 일하는 김순자(60)씨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기 바빴다. 이곳 현장사무소에서 1년6개월째 일하고 있는 김씨는 사업 마무리가 되어가는 요즘도 매일 60여 명의 식사를 하루 3번 준비하고 있다. 이곳 현장사무소에도 다른 현장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숙식을 하는 직원들이 수십 명. 한때는 좀 더 많았지만, 요즘에는 50여 명이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고 있다.

다른 두 명의 주방식구와 함께 주방일을 맡아온 김씨는 대구에 집이 있다. 이곳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기에 한 달에 두 번 대구 집에 다녀온다. 김씨는 5년 전부터 대림산업의 현장사무소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구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집에서 떠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곳 주방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현장직원들이 숙식을 현장에서 해결해 시간을 아껴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 매일 정시에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촘촘한 일정의 주방일보다 바깥에서 있었던 시위와 반대여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뿐 아니라 이곳 현장 근무자들은 낯선 외부인들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한다.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까지 이곳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이포보도 완공됐고, 마음고생에서도 벗어나 기쁩니다."

최병습 강정고령보건설단장
"16개보 중 가장 크고 가야금 모양도 아름다워"

"완성된 강정고령보를 보면서 역사적 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최병습 강정고령보건설단장은 강정고령보 개방행사를 맞이한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최 단장은 16개보 가운데 규모 면에서 단연 '톱'인 강정보에 대해 "다른 보들이 '수퍼마켓' 규모라면 강정고령보는 '백화점'"이라고 표현했다. "콘크리트 타설물량만 22만세제곱미터가 투입됐습니다. 다른 보 건설 현장의 경우 적으면 7만, 많아야 12만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최 단장은 "강정고령보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보"라며 "규모면에서 최고일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강정고령보 봤으면 보 다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기능도 뛰어나다"라고 자랑도 잊지 않았다.

최 단장은 강정고령보가 그저 덩치만 큰 보가 아님을 강조했다. "가야 유물과 섬유도시 대구 이미지를 첨단기술로 구현한 강정고령보는 가야금 12현을 본떠 만든 고정보 12개 곡선계단에서 물 흘러내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첨단 정보기술(IT)이 적용된 물풍금이며, 강수욕이 가능한 낙락섬과 강 조망을 위한 탄금대는 어떻고요. 밤이 되어 조명까지 곁들이면 환상적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갖고 메콩강위원회사무국(MRCs) 파견근무 등을 통해 해외 40여 개국을 돌아본 최 단장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적 욕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신적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는 방안이 수변공간 개발이었다"고 전했다.

강정고령보 현장근무 4인방
"여름철 비 올 땐 며칠씩 24시간 비상근무했죠"

"완공된 걸 바라보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강정고령보 현장사무소(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사람들이다. 강정고령보 건설을 담당한 대림산업 직원들 가운데 '자칭 타칭' 현장사무소를 대표하는 '얼굴'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얼굴'이 임종식(40) 관리차장. 다음이 전태명(35) 공무과장, 그리고 강정고령보 현장의 동갑내기 꽃미남인 제치훈(28) 기사와 김재정(28) 기사다(사진 오른쪽부터). 이들 가운데 강정고령보 현장에 파견되자 아예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온 전 과장을 제외하고 모두 현장사무소 숙소에서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다.

강정고령보 현장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현재 약 50명가량. 임 차장은 "현장직원들은 대림산업 소속인 경우 회사에서 발령을 내기도 하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 관련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새로 고용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 사람들이 현장사무소에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된다. 집이 멀지 않은 분도 워낙 현장 업무가 바쁘다 보니 현장사무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일에 대해 "정말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현장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반대여론에 마음고생 했다. 임 차장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받으며 일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반대단체들의 시위에 항의에 대처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다"고 말했다.

강정고령보는 이번 보 개방으로 전체공정의 98퍼센트가 끝났다. 이들도 곧 '고향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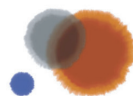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틀림

다름

'틀림'을 지우고, '다름'을 입력하세요!

종교, 성별, 학력, 장애….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때,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 사회가 시작됩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기 획 특 집

한국경제 성장엔진 한·미 FTA로 재점화

개방은 경제성장의 미래를 가르는 키워드다. 국력이 힘차게 뻗어나간 나라를 보면 예외 없이 개방 정책을 취했다. 우리의 '문'도 점점 열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장에 따른 결과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GDP 기준 세계 경제영토의 61퍼센트가 우리의 땅이 된다. 이에 따라 교역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늘며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와 안보 등 경제 외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한·미 FTA는 양국의 교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 흑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1 CES'의 LG전자 부스.

한국경제의 미래… 우리 몫으로 남았다

무역·일자리 등 경제효과 외 교류확대 등 비경제적 효과 무시 못해

가던 걸음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 나갈 것인가. 한·미 FTA의 운명이 이렇다. 정부의 바람대로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한다면 한국은 EU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게 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강조한다.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뜻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처음 개최된 것은 2006년 6월이었다. 양측이 합의안에 당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2일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그해 6월엔 협정에 양국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곧 발효될 것으로 짐작되던 한·미 FTA는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했다.

협정안이 타결된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12일(미국시각), 고착 상태의 한·미 FTA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 FTA의 운명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됐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발효가 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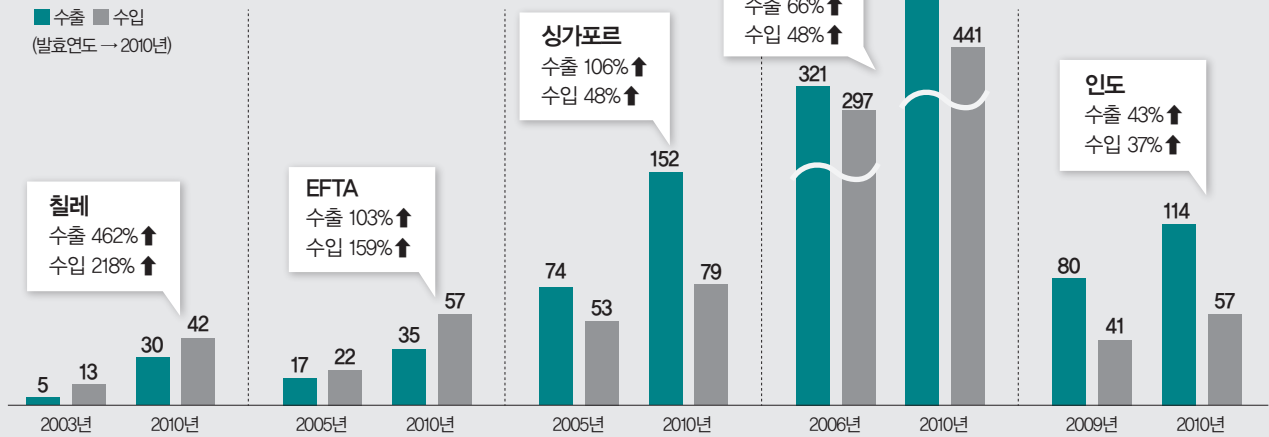
당초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개방이 우리의 미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이 늘어야 추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지대하다. 장기적으로 GDP가 5.66퍼센트 증가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된다. 미국산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는데다 종전보다 다양한 제품이 들어와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3백21억 달러의 소비자후생이 창출될 것으로 국책연구원들은 전망했다.

한·미동맹, 군사·안보에서 경제로 확장

교역도 크게 늘어난다. 대미 수출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2억9천만 달러, 수입은 11억5천만 달러 불어난다. 수입보다 수출증가량이 많아지면서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천만 달러 개선된다.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효과도 있다. 우선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과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 결과 우리의 경

제 시스템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정치 외교적인 기대도 있다. 먼저 한·미 양국 간의 다원적 전략 동맹이 강화된다. 기존의 군사 안보적인 동맹에 경제 동맹의 성격이 더해진다. 양국의 경제가 좀 더 끈끈하고 유기적이며 전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FTA의 경제적인 효과는 기 체결돼 실시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FTA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잡는 것은 교역량의 변화다. FTA를 체결한 지역과 교역은 예외 없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FTA가 발효된 칠레의 경우 발효 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4백62퍼센트, 수입은 2백18퍼센트 불어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 1백6퍼센트, 수입 48퍼센트 증가를 나타냈다. 아세안, EFTA, 인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걱정했던 부작용은 크지 않았다. 칠레와 첫 FTA를 맺을 당시 무엇보다 걱정은 농업이었다. 농업 강국인 칠레의 농산물이 한국의 식탁을 집어삼킬 것이란 으스스한 예언이 난무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비관적인 예측은 큰 차이로 빗나갔다.

포도, 키위 등 특히 우려했던 품목의 경우 한국에서 재배면적이 오히려 넓어졌다. 생산량도 당연히 많아졌는데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났지만 국내산 돼지의 사육두수도 많아지고 가격도 올랐다.

칠레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피해농가의 시설을 현대화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실시하며 경험을 쌓은 정부는 미국과 FTA 협정을 진행하면서 '국내보완대책'을 동시에 수립했다. FTA 취약 업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인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8월에는 한·미 FTA에 대비해 기존 보완대책을 확대 보완하는 등 한·미 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비준 1년 늦어지면 연 15조여원 손실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정부의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산업 선진국과의 FTA여서 농업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목소리다. 지금까지의 FTA와는 격이 다른, 전혀 다른 양상의 FTA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맺으면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보다 힘든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준이 1년 늦어지면 연간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발효 지연에 따라 한·미 FTA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행법률의 제·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변형주 기자

농어업 경쟁력 높일 인프라·사업 확대

현장 모니터링·성과분석 바탕으로 지원규모도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려

한·미 FTA로 상대적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이 그렇다.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보전부터 경쟁력강화 지원 등 FTA 피해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수립해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전문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농민과 어민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됐고 예산도 1조원 증액해 22조1천억원이 됐다.

종합대책은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했다. 추진 과제는 크게 3가지다. 피해에 대한 직접보전의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이 그것이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개편해 피해 직접보전 대책을 강화했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는 FTA로 경제제품 수입이 급증해 받은 품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어업 폐업 시 3년간 수익 보전

종합대책은 이 제도가 발동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가격이 평균가격의 80퍼센트 밑으로 떨어져야 적용했던 것을 85퍼센트 이하로 수정했고 사전에 지정했던 품목을 사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고쳤다. 피해보전 비율은 피해액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늘렸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말까지 10년간 운용된다.

조선DB

농어업 등 한·미FTA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프리카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선 마케팅을 지원해 해외진출을 돕는다.

폐업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폐업 지원제도는 수입품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해당 품목의 사업을 폐업할 때 3년 동안 종전 순수익을 제공한다. 농업의 경우 직전 5년 중 수익이 최고, 최저였던 두 해를 제외한 3년간의 수익을 평균한 액수의 3년 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이나 재취업 등 새로운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는 물질적·시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상 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개편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개편해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확대했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급감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와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출액이나 생산액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적용되던 것을 20퍼센트로 완화했고 적용 대상도

제조업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넓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완했다. 먼저 축사, 과수, 원예 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을 대폭 늘렸다. 1조5천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은 시설 취약농가 전체로 확대했다.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 규모도 4만7천헥타르에서 5만4천헥타르로 넓혔다.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범위는 전문단지에서 일반단지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 융자한도 3배 확대

산지유통센터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추가 지원해 수급조절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3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제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전업농의 비중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령의 농민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최장 10년간 1헥타르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업농의 당해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도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의 경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저리의 융자금을 제공해 자원순환형 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배작물 다양화와 생산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 투자자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경제발전과 제도의 선진화, 한미동맹 강화 등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FTA가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많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오해 ❶ 한·미 FTA는 우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한다?

진실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식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나온 오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은 조약은 그대로 국내법에 수용되는 일원론적 체계다. 이에 비해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법이 필요한 이원론적 체계다. FTA이행법을 통해 국내법 체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효력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국 모두 한·미 FTA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빈협약 27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이 한·미 FTA협정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해당 미국 국내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해당 법규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이행법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한·미 FTA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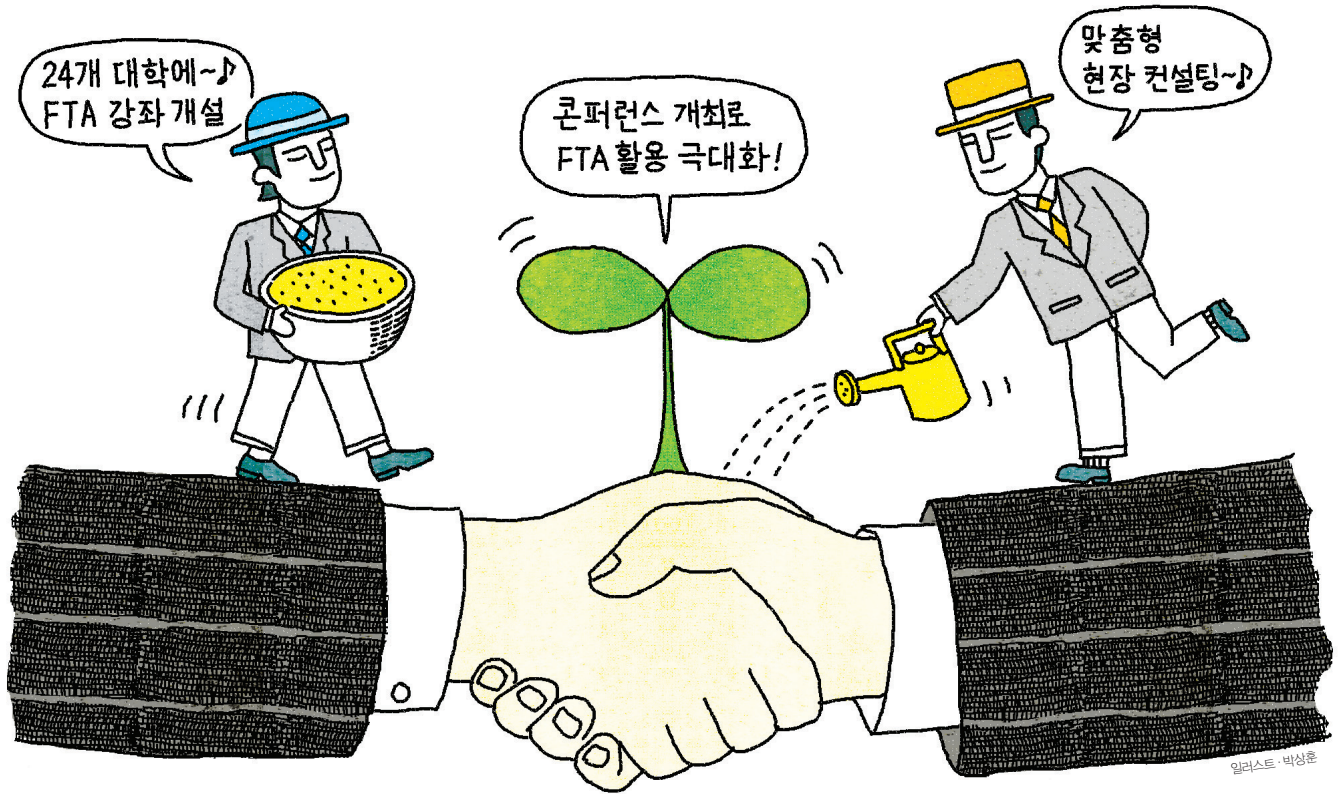
오해 ❷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할 수 있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법원에 소송할 수 없다?

진실 소송에 관한 오해 역시 양국의 법체계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일원론 체계인 우리나라에선 한·미 FTA협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원론 체계인 미국에선 한·미 FTA이행법을 매개로 소송을 해야 한다. 양국의 소송 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소 할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활용하는 점에선 오히려 한국의 투자자가 유리하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법원에 투자와 관련해 소를 제기한 경우 ISD에 대한 청구권리가 상실된다. 이에 비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를 했더라도 이를 중도에서 중지하고 ISD에 사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오해 ❸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

진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의 수는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FTA이행법을 통해 8개 항목에 대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는 23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데 이 중 9개는 이미 정비됐으며 14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일러스트 · 박상훈

대학에 강좌… FTA 프런티어 키운다

중소기업 대상 콘퍼런스 · 구매상담회… 'FTA 닥터 사업'도 진행

대학 강의부터 기업 컨설팅까지, FTA 관련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 한 해 전국 24개 대학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FTA 강좌가 개설됐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콘퍼런스도 열렸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주최한 이 콘퍼런스에는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볼프강 슬라번스키 EUCCK 부회장,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24개 대학에 FTA 강좌

실습 위주 강의… 기업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한·미 FTA의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많고 많은 올해의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것으로 꼽히는 FTA지만, FTA의 면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면,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먼저 대학에서 FTA를 강의로 만날 수 있다. 올해 전국 24개 대학에는 총 39개의 FTA 강좌가 개설됐다. 학생들은 강좌를 통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이해하고, FTA 협정 내용 전반을 배울 수 있다.

강좌는 산업별·분야별 협정내용, 수출인증자제도 등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또 딱딱한 이론 위주가 아닌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총 3억9천만 원의 예산을 강좌 지원에 책정했으며, 실습비·운영비 등을 포함해

강좌당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FTA 강좌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남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서 'FTA 이해와 활용'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곽근재 교수는 "강의가 거듭될수록 FTA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했던 학생들도 흥미를 보인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방과 후에 토론을 한다"는 것이 곽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학기 이 학교에서 'FTA의 이론과 실제'를 수강했던 모성식씨는 "FTA의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강의의 큰 장점"이었다며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심화 학습을 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지난 1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 진출전략'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럽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리였다.

FTA 활용 극대화 위한 콘퍼런스

유럽 완성차업계·국내 부품업계 협력방안 제시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 산업 EU 진출전략'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는 유럽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볼프강 슬라번스키 EUCCK 부회장,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필립 게랑부토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아우디, 폴크스바겐, RSM 등 유럽완성차 구매담당 임직원과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CEO 및 임직원 1백70여 명도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이 EU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EU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수출 중소기업이 보다 명확한 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세션의 주제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를테면 '르노의 R&D 전략 및 부품 협력', '폴크스바겐의 글로벌 부품 공급 정책'(이상 세션2), '다임러 그룹의 부품협력사가 되는 방법', '실질적인 관세 문제 사례'(이상 세션3)와 같은 식이다.

모든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오후 2~5시에는 국내 중소기업과 EU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매상담회가 열렸다. 완성차 업체로는 다임러, 폴크스바겐, 르노, BMW 등 다양한 회사가 참여했다.

'FTA 닥터' 맞춤형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에 FTA 전문가 방문해 무료 컨설팅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부터 'FTA 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 닥터 사업이란 FTA 체결국에 수출을 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중소기업 혹은 수출 기업에 원재료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FTA 전문가가 방문해 무료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FTA 전문가팀은 생산 품목의 원산지 판정 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을 코칭한다. 또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안내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업종별 해외 시장 진출 집합 컨설팅도 마련돼 있다.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섬유 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시장 특성, 산업별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해 준다. 이 밖에 해당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구체적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송연실 무역조정지원센터 과장은 "FTA 원산지 증명 기준이나 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FTA 닥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소영 기자

국내업체 손잡아 세계시장 진출 '파란불'

자본·기술·영업 분담… 공동 브랜드로 시장개척 나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LED 조명산업에 대한 2.6퍼센트의 관세를 미국이 즉시 철폐하게 된다. 중국 등 경쟁국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철폐는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결합한 한국조명기술연합회가 발족해 세계 LED 조명 시장을 활발하게 노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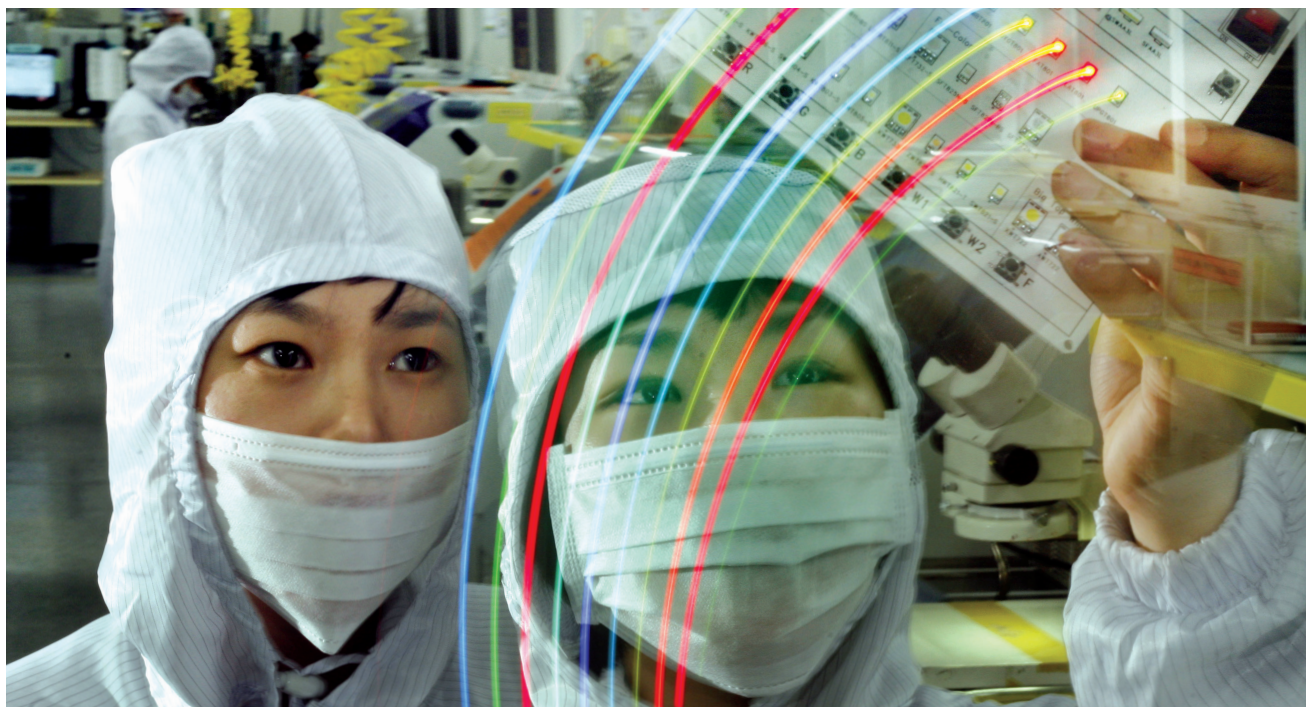
LED 조명산업은 한·EU FTA가 발효되자 4.7퍼센트의 관세를 EU가 즉시 철폐했다. 여기에 EU의 에너지 절감 움직임도 호재였다. 차량, 가로등, 친환경건축물 등에 LED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산 LED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EU의 우리나라 제품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약 8천만 유로에 달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2.6퍼센트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에 최근 LED 조명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한국조명기술연합회(이하 연합회)'의 등장이다. 정상익 회장을 중심으로 국내 유망 LED 전문 중소기업 5개사와 장애인 재활시설인 에덴복지재단이 뜻을 함께했다. 연합회는 '에코루체'라는 LED 공동 브랜드를 출시하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개척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관세철폐로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구도 갖춰

정 회장이 연합회를 만든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단가 경쟁'에 치우친 국내 LED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이다.

핵심 기술인 컨버터 생산은 반도체 시험장비 주력 업체인 유니테스트에서 맡았다. 부품 공급과 제품 분석은 한라IMS, 다비치, 대륙

조선DB

한·미 FTA가 발효되면 LED 조명산업은 2.6퍼센트의 관세 철폐라는 수혜를 입는다. 하지만 그전에 국내 규격 기준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진은 LED 생산라인에서 완제품을 검수하는 모습.

손수원 기자

에덴복지재단 장애인 근로자들은 특유의 끈기와 집중력으로 제품 불량률을 줄이는 데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다.

ITS 등 LED 조명 전문기업이 담당한다. 제품의 조도계산 및 설계 지원은 삼정의 CAD전문가 정상철 사장이 맡기로 했다.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지역 등의 수출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본, 기술, 영업력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셈이다.

'에코루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로 UN에 등록된 에덴복지재단 내에 LED 조명 제품의 공동생산 시설을 갖추고 지난 9월 28일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유망중소기업의 연합이라는 것도 주목할 일이지만, 기업과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공생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에덴복지재단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LED 조명 생산 중 조립라인을 맡았다.

이러한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결합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란 명분을 중요시하기에 협상 테이블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고효율·친환경 등 국내 규격 기준 간소화 필요

하지만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국내 LED 제품에 대한 각종 규격 기준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LED 제품은 안전(KC마크), 친환경, 고효율 등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인증 제도는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기술이 있어도 이를 제품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국내 LED 조명산업은 해외에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해 낮은 가격에 납품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격 기준 인증의 간소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고효율, 친환경 등 각각의 인증 기준을 KS 규격 기준으로 통합하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로써 업체들은 기술개발에 힘쓸 수 있고, 해외에서도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 경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우리나라 LED 조명산업은 2009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세 철폐'란 달콤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규격 기준의 통합화'란 도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G

글·손수원 기자

한국조명기술연합회 정상익 회장

"한·미 FTA는 절호의 기회… 규격 기준 통합 시급"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어떤 수혜를 기대하는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4.7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한·미 FTA에서는 2.6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곧바로 수혜를 입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선 국내에서 LED 제품에 대한 규격 기준을 통합해야 해외에서도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다."

해외 시장 개척은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가.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연합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다양한 수출로를 우선 공략해 미국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일단은 대만, 인도 등 제3국의 영업로를 개척하고 있다."

연합회 구성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술과 명분의 결합'이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대단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란 무기를 하나 더 준비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단순한 제품만이 아니라 '기술과 명분'이란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다."

연합회의 LED 공동 브랜드 '에코루체'는 어떤 것인가.

"에코루체는 연합회에 참여한 업체의 핵심기술을 집약한 결정판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디에서 누구와 경쟁하더라도 자신 있다. 인공지능 센서를 이용해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에코루체의 프리미엄 시장 진출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LED 조명산업을 전망해 본다면?

"평소 '제품의 개발은 소비자에게서 온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국내 규격 기준이 통합되고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의 가격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DB

섬유패션산업은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로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나 고용창출 등도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0 대구국제섬유박람회'의 모습.

품질엔 자신… 섬유 르네상스 부푼 꿈

경쟁국에 비해 20퍼센트 비싼 가격이 경쟁가능 수준으로 낮춰져

섬유산업은 대미 비교우위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서 섬유산업은 중국 이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돼 대미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한·미 F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8월 발표한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산업을 자동차 부품, 기계 등과 함께 '수출유망 상품'으로 꼽고 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여성용 드레스, 인조섬유 파일편직물, 양말, 면섬유 유아동용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표한 '코트라가 뽑은 FTA 10대 수혜품목'에도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카매트가 올라 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카매트 수출에 날개 달 것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작년 한 해 대미 수출액은 1억3천7백만 달러,

카매트는 1천9백만 달러였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FTA로 4.3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중·고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여력이 다분해진다.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혼방비율이 확대되고 있어 현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특히 한·미 FTA는 얀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값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를 써왔던 국내 직물업체들의 국내산 사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매트는 작년 대미수출액이 1천9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출증가율은 1백퍼센트를 기록한 품목이다. 6.7퍼센트의 현행 관세가 철폐되면 고급차량용 카매트의 가격경쟁력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산 카매트는 중국·멕시코·타이완에 비해 20퍼센트 정도 비싸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가격차가 5~10퍼센트 가량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준안 신속 처리로 시장 조기선점해야"

업계의 기대도 높다. 국내 최대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업체 휴비스의 신유동 상무는 "수출에 있어 미국은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실제 FTA가 발효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력상품마다 마케팅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친환경섬유 LM파이버(LMfiber, 기존 폴리에스테르보다 녹는점이 낮은 친환경섬유)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에서는 지난 7월 FTA지원센터를 꾸려 FTA를 계기로 섬유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은 "국내 섬유패션기업에 한·미 FTA는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산련은 10월 21일 '한·미 FTA 비준 촉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섬산련은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 속에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국회도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FTA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특히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로 국내 섬유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FTA 조속한 발효로 경쟁국보다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박근희 기자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국내 섬유패션업계가 재도약할 모멘텀"

국내 섬유산업의 규모와 현황은.

"2010년 기준 국내 5천32개 기업에서 17만 3천명이 일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출하액이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95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섬유수출국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은 약 1백40억 달러, 수입은 9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대미 수출에서 걸림돌이 돼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역시 '관세'다. 미국은 섬유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 시장에서 대만, 중국 등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온 데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 특혜로 멕시코, 캐나다 등과는 가격 및 시장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한·미 FTA는 국내 섬유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나.

"우선 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급화·차별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폐지 시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멕시코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또한 이에 따라 국내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단기적 효과는 부분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섬유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연합회에서는 FTA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지난 7월 18일부터 FTA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정부 FTA 협상 지원, 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다. 관련 공용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 각 FTA별 인증수출, 원산지 관리 등 수요자 중심교육을 통한 실무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이 수료했다."

한·미 FTA 이후 앞으로 국내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범용 의류용 소재기술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반면, 신소재는 선진국과 4~7년 격차를 보인다. 신섬유는 자동차, 전자, 건설 등 타 기간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므로 향후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

국내 섬유산업을 대표해 정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슈퍼섬유·나노섬유·스마트섬유 등 첨단기술 섬유 개발 및 기업 간 협력기술 개발 등 생산 기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까다로운 미국, EU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통한 FTA 활용극대화 및 국내 섬유생산기반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저가공세에 가격경쟁력 날개 단다

브레이크 패드, 냉간단조 부품, 볼트·너트 10대 수출유망상품에 꼽혀

지난 10월 13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미 FTA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상품'을 발표했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유망해질 6대 산업(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정부조달) 중 10개 품목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품목은 이 중 3개로 브레이크 패드와 냉간단조 부품, 볼트·너트가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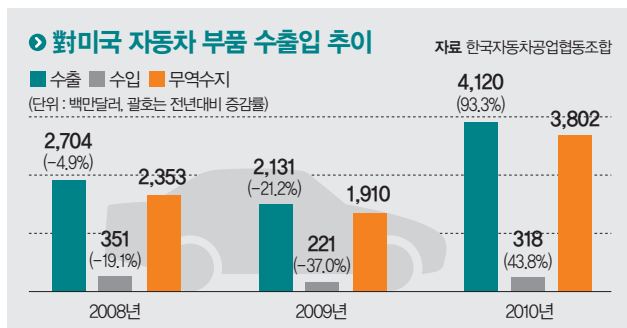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유망해질 6대 산업 중 하나다. 브레이크 패드, 냉간단조 부품, 볼트·너트 등의 자동차 부품은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출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미 FTA의 수혜 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 부품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코트라는 한·미 FTA 발효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으로 브레이크 패드, 냉간단조 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볼트·너트, 자동차 공조용 부품, 풀리(Pulley), 덕타일 주물제품,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 에어백 등을 발표했다. 이 중 브레이크 패드와 냉간단조 부품, 볼트·너트는 10대 수출유망상품에도 꼽혔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익을 보는 제품으로는 가장 먼저 브레이크 패드를 꼽을 수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이 한국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산 브레이크 패드의 대미 수출액은 약 2억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2.5퍼센트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까지 높아져 수출 여건이 개선된다.

中 저가제품 실망한 바이어 관세철폐 한국산으로

냉간단조 부품 역시 10대 수출유망상품 중 하나다. 냉간단조 부품이란 엔진블록, 피스톤, 샤프트 등을 말한다. 냉간단조 부품은 지난해 대미 수출액만 약 7억7천9백만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미국 내 냉간단조 부품 수입시장은 일본이 24퍼센트, 멕시코 20퍼센트, 캐나다가 19퍼센트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높은 인건비로 인해 냉간단조 부품의 수

입량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관세 인하 효과를 이용해 FTA 발효 2~3년 이내에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냉간단조 부품에는 최대 2.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대비 가격 열세는 보강되고 일본산 대비 가격 우위는 강화된다.

볼트·너트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1억2천2백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2009년 기준 미국의 단조 볼트·너트, 스크루 제품의 시장 규모는 약 1백81억5천만 달러였고,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볼트·너트의 현 수입관세율은 5.7~12.5퍼센트로, 관세 철폐에 힘입어 한국산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북미 지역 볼트·너트 제조업의 경우 특정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품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품목별 공급업체 수를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우위 굳힐 기회

자동차 공조용 부품은 미래 시장이 기대되는 상품 중 하나다. 과거에는 선택사양으로 인식되던 에어컨 등 공조장치가 이제는 필수사양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 5퍼센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세철폐에 따라 격차가 줄어들면 바이어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공조용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1천5백만 달러였으며, 현재 최대 2.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풀리는 추진축으로부터 벨트를 통해 각 부속 장치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다. 그간 미국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해 왔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이 다른 아시아 국가 제품을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덕타일 주물제품은 구상흑연주철 소재로 크랭크축, 브레이크드럼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국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2.5퍼센트 정도다. 국산 제품에는 최대 2.9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대비 가격열세 극복과 일본산 대비 가격우위 강화가 예상된다.

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3.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독일 등 선진국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된다. G

글·박소영 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최문석 팀장

"가격과 품질에서 한국산 단연 으뜸"

현재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세계 시장 상황은.

신흥 시장 성장세가 계속돼 시장이 매년 3~6퍼센트씩 확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약 3천5백억달러로, 전체의 30퍼센트 정도다. 우리로서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 될 것이다. 대형 부품 업체들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 생산에 대한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평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뛰어난 품질로 신뢰도가 높다. 가격과 품질에서 한국산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GM사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은 2002년 16개사에서 2010년 2백35개사로 늘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총 1백90억달러로 역대 최고였다. 올해 수출 예상액은 약 2백30억달러다. 이중 대미 수출은 상당한 비중(약 20퍼센트)을 차지한다.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41억2천달러, 수입은 약 3억2천달러로 흑자 규모가 약 38억달러에 육박했다. 미국은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대상 국가다.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산 신차 모델들이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품 업체들의 수주(완성차 업체 및 1차 납품업체로부터)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FTA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있다면.

한·미 FTA는 대일 자동차 부품 무역역조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물류 비용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오던 안전 관련 부품 및 첨단 기술 부품을 일부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인터뷰

“35만 개 일자리·가격 안정… 친서민 정책”

한·미 FTA는 우리 경제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피해 업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피해업종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김익주 본부장에게 한·미 FTA의 효과와 보완대책을 물었다.

한승환 기자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FTA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의 당위성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 온 나라”라며 “이를 유지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 상황은 한·미 FTA를 한층 더 요구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로 퍼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FTA는 이런 위험을 낮추고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발 더 다가왔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고용, 무역수지, 소비자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에도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하는 협정인 셈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나 선진 제도 도입 효과 등 한·미 FTA에 대한 비경제적 효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인도의 입장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는 통상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인도는 이 사건들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강화되면 외교·안보관계 역시 보다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한·미 동맹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도 됩니다. 선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이 확산되고 중장기적으론 우리 산업의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문화, 인력, 관광, 인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관세철폐는 한·미 FTA 효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가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한국이 자국의 기업보다 교역 조건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입니다.

한·미 FTA는 이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는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칠레나 아세안(ASEAN) 등 이미 발효된 FTA와 달리 미국과 FTA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강한 산업도 있습니다. 또 취약한 업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미 FTA로 수출 대기업이 성장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제품 수입이 확대돼 매출액이 급감하는 기업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컨설팅 및 융자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중심의 FTA'라고 혹평합니다. 서민들에게 한·미 FTA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친서민정책입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의 약 85퍼센트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 수입선이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인하는 또 다른 국가의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전반적인 수입제품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FTA로 모든 업종과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장점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는 EU와의 FTA에 대비해 축산 및 화장품·의료기기 등 피해산업을 위해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업체, 부처 등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200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FTA 보완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잖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과수, 원예 시설 현대화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액도 2007년 38억 달러에서 2010년 5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의 보완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선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수출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미 FTA를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이상이 지난 만큼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될 경우 컨설팅 대상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도 다질 계획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한·미 FTA 비준은 '선택' 아닌 '필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승인된 것과 관련,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했고, 민주당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측면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지난 10월 2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 야당과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던 유기준 의원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FTA 추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재선인 유기준 의원은 2004년 17대 때 정계에 입문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거쳐 행정자치위 간사, 대변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됐는데, 미국 측이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도 빨리 처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국이 FTA 체결하고 4년3개월이 넘었잖습니까. 그나마 미 의회에 상정되고 신속하게 처리돼 잘됐다고 봅니다. 양국이 한날한시에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면서 FTA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야당의 반대가 더욱 노골적이고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던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태도를 돌변해 이를 '을사늑약'으로 몰아붙이며 반대선동과 점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 63%, 〈매일경제〉 60%, 〈중앙일보〉 57.8% 등 FTA 비준안에 대해 국민들 60퍼센트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농업인 등 2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피할 길 없는 현실의 문제'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심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호소했다"면서 "농업 현

장을 잘 아는 도지사의 말은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예로 들면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선 실질 GDP가 5.6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미국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수출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해외 자본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정치적으로도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야당은 한·미 간 추가협상 결과 한·미 간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협상을 했지만, 우리도 2007년 서명한 협정문이 발효가 안 된 채 사장될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추가협상을 통해 살려낸 것입니다. 추가협상으로 2007년 협정과 비교해 연간 4백6억~4백59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연간 5억5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8천8백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회'는 보고서를 펴내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도 새로운 모멘텀 확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 7월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양국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재재협상안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준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07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약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 GDP 연간 8조원, 후생증대 연간 2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 약 2조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구분	민주당 재재협상안 주요 내용	한나라당 입장 또는 대책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 내용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 쇠고기 양허 조정 요구시 상품분야의 전반적인 재협상으로의 확산이 불가피 • 양허 재조정의 반사이익은 한우가 아닌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에 돌아갈 것이므로 실익 없음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 관련된 개방약속은 WTO서비스 협정에서 16년 전부터 개방 • 한·미 FTA 불합치 이전에 WTO 불합치 문제가 발생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 3년 이행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 • 국내특허 신약 연구개발 장려, 복제의약 업체의 보호를 위한 방안 추진 중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우리의 기체결 투자보장협정(85개), 투자 관련 국제협정(2천여개)에서 일반화된 글로벌스탠더드임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 래칫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한정적 분야(현재 유보)에만 적용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내보완 대책	통상절차법 제정	• 통상절차법 제정 없이도 대국회 보고·협의 강화 및 대국민 의견수렴 강화가 가능 • 바람직한 관행 정착방안에 대해 정부·국회 간 협의추진 검토 가능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개방정책 기조와 피해기업 지원 효율성 간 조화를 이루도록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 추진 중

자료 유기준 의원실

일부에서는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미 FTA로 모든 분야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천4백4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은 연평균 6백86억~1천1백97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겁니다. 피해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1조원을 투입하는 보완대책을 이미 2007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1조원을 늘렸고, 별도로 한·EU FTA 축산업 대책으로 2조원을 늘려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기준 의원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발효 후 2년차에 수출증가 예측치를 초과하고, 발효 후 6년 만에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先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김동철 민주당 의원

“양극화 부추기는 부자 중심 FTA 안 된다”

“한·미 FTA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익이 최우선 판단기준이 돼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2007년 협상이 타결된 후 4년이 넘었지만, 비준이 안돼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이 시기를 이용해 재협상을 이끌어 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반면, 조기 비준을 외치던 한나라당 정권은 미국 측에 굴복해 애써 확보했던 이익마저 다 내주고 말았다”고 했다.

뉴시스

김동철 의원은 “서둘러서 좋은 협상은 없다”면서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한·미 FTA에 앞서 이미 체결한 FTA들을 들여다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동철 의원은 “작년 말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상으로 한·미 FTA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미 의회가 비준했다고 우리 국회가 즉시 비준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선인 김동철 의원은 17대 때 국회에 들어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 간사를 거쳐 현재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다. 17대 때는 국회 한·미 FTA체결대책특위 위원,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원을 지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이룬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손해 보는 FTA, 불공정한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소조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끌려다니거나 현실성 없는 재재협상론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여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한 건의 통상협상이 아니라 한·미 간 ‘통상의 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협상이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준비 안된 FTA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통상협정은 이익 보는 편이 있으면 손해 보는 편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우선 마련돼야 합니다. 나아가 이익을 보는 쪽이 손해 보는 쪽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미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페루 등과 FTA를 체결했고, 이들 국가와의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이제 막 검증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FTA에 앞서 이미 체결한 FTA를 들여다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업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의 생산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천1백50억원입니다. 특히 축산업의 위축이 걱정이죠. 연평균 4천8백66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미 수출액은 연평균 78만 달러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증가액은 1천1백78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명태 생산국이라 원양어업계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이나 소득 재분배, 독과점 규제, 금산분리 원칙,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정비돼야만 외국과의 통상에서 문을 열고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FTA가 현 정부의 또 다른 1%를 위한 부자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 중심의 FTA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월가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분노의 시위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그러지 않아도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상인과 농민 등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을 줄 겁니다."

민주당은 '한·미 FTA를 바로잡자'면서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쇠고기 관세 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둘째, 국내 제약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래칫(ratchet) 불가조항(일단 개방한 부문은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원칙)처럼 국제무역법상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특정국가(한국)의 이익 또는 주권을 침해하거나 정책을 제약할 조항을 철폐하자는 겁니다.

셋째,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확보나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요건강화 등 국가 간 무역협상에서 상호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내 보완대책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구분	재재협상안	주요 내용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가지 항목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퍼센트씩 철폐해 15년차에 40퍼센트 관세를 모두 철폐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현행유보' 또는 '미래유보'에 중소상인 보호 의무와 관련법안 유보내용을 기재
	개성공단 생산 제품 한국산 인정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와 교육청의 비용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급식 프로그램에 한해 정부조달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조달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수정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협정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부문을 삭제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의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상당하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해 미국 측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도입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대표적 독소조항. 현재 조세 및 부동산 정책 등도 이론상 ISD 제소가능하므로 조세조치와 부동산 정책 및 보건, 안전 등 공공정책은 예외없이 ISD 제외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개방의 범위와 수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규제 권한이 더 중요하며, 공적 규제 권한 확보에는 포지티브가 더 유리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협정상 양보한 것이 아닌데 원상회복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권제약 조항
국내 보완 대책 2가지	통상절차법 제정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 과정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FTA로 피해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하고, 피해 국민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자료 김동철 의원실

김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에서 비준처리했다고 우리도 곧바로 비준해야 하는 '시한폭탄'이 아니다"면서 "미국이 4년 넘게 끌어오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재협상 과정에서 잃게 된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눈앞 손익보다 '경제선진화 혜택' 따져야

무역피해는 농업과 함께 중소기업·서비스업종도 관심 가져야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측면도 있다. 양국의 입법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측면도 봐야 한·미 FTA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한·미 FTA 토론에서 정부 측과 반대 측 간에 많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말이 끝장토론이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정 자체의 폐기를 목적으로 온갖 억측을 동원해 끊임없이 쟁점을 제기하고 있어 토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적 화두가 되었던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키는 데 FTA를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면서부터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국내의 낙후된 제도와 규제를 손대지 못한 상황에서 태국발 외환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쓰라린 경험이 작용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여파로 반개방 정서가 확산된 당시의 국내 여건하에서 우리 정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미국과의 FTA는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역효과는 한·미 FTA 효과의 일부일 뿐

국회의 한·미 FTA 토론에서 경제효과, 의무사항, 협정이행을 위한 개정 법률의 개수 차이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한·미 FTA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협정의 정신을

조선DB

교역 확대는 한·미 FTA 효과의 일부분일 뿐이다. 사진은 현대차의 수출차 선적 장면.

구현해 나가는가가 한·미 FTA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먼저 경제효과 추정에서 수출입 효과만을 볼 것이냐 개혁개방의 경제이익을 고려할 것이냐의 차이가 쟁점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규제완화를 포함한 우리 경제 선진화의 혜택을 미국과의 FTA 경제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정부가 추정한 한·미 FTA 경제효과가 장기적으로 GDP 5.66퍼센트 증가하는 것은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역효과만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미국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협정상의 의무사항이 더 많다는 지적 역시 개혁개방 관점에서 봐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비합리적인 규제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협정을 타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게 되었는데, 반대론자들은 이를 차별적인 사항으로 간주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선시킨 제도를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개악하는 것을 허용하면 경제 선진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FTA는 있으나마나 한 협정이 될 수밖에 없다.

개정 법률의 숫자는 입법체계 차이서 비롯

지난 10월 12일(미국 시각) 미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 비준으로 협정 이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문 전체를 비준하고, 협정 이행을 위해 23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들어 불평등한 협상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통상정책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SAA)에 모든 사항을 담게 되므로 개정 법률 개수로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고, 입법체계의 차이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규제를 고쳐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던 2007년 4월 국내 통상학자들은 한·미 FTA가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의료와 교육 서비스가 협정에서 제외된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분야가 빠진 것은 잘된 것이고, 협정이 부실할수록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감기약 수퍼 판매 허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가 얼마나 어려우며, 이익단체가 여야 국회의원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외국에서는 수퍼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을 우리나라에서도 인근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 한·미 FTA를 이행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회.

연합

수퍼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의료와 교육 개혁은 어떻겠는가? 이들 분야를 미국과의 FTA에 포함시켜 개혁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 한·미 FTA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내년 1월 1일 이행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달 중 우리 국회의 비준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 끝장토론이 비준 지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토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FTA 자체 및 협정의 정신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확대 이익은 협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완화와 개혁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의료와 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하고, 노동문화 등 투자환경과 소모적 논쟁을 일삼는 정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업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조원의 농업 분야 지원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돼야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 당국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무역피해는 농업 위주로 논의되었으나, 미국, EU 등과의 FTA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G

글·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다문화 '영암댁'들, F1 성공의 '숨은 주역'

필리핀 출신 마리벨 압신 등 14명, 호텔운영 요원으로 통역서비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맹활약을 펼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있다. 필리핀 출신의 마리벨 압신 씨 등 이주여성 14명은 지난 8월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서비스인 'F1 호텔운영요원'으로 나서 지역을 찾은 외국인들과 숙박업소 간의 소통을 담당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10월 14~16일에 영암에서 열린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는 3일간 관람객 16만여명(외국인 1만명)이 몰려 단일 스포츠 사상 국내 최다 인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대회 결승전 전날인 토요일엔 고급숙박시설이 모두 동이 나고 조직위원회에서 추산한 가용객실 4만2천 실 중 75.8퍼센트인 3만2천 실이 사용되는 등 영암의 숙박업소는 말 그대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어도 지난해에 영암을 찾은 외국인들이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던 '의사소통 문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오히려 '편리한 호텔 이용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이 쇄도할 정도였다.

1년 사이에 달라진 평가를 이끌어낸 데는 이주여성 14명으로 구성된 'F1 호텔운영요원(통역요원)'의 공이 컸다.

F1 조직위원회 숙박팀의 문권옥 차장(46)은 "지난해에는 숙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였다"며 "올해에는 언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와 우리말에 능한 다문화가정여성 14명을 선발해 호텔운영요원으로 둔 것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조직위 숙박팀에서 외국인들의 숙박예약을 지원하고 통역서비스를 했는데, 이것이 전남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얻어"

12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필리핀댁' 마리벨 압신(34·영암군 삼호읍) 씨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 실력을 발휘해 8월부터 F1대회조직위원회 숙박교통안내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필리핀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마리벨 압신씨는 영암지역 자활센터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왔는데, 정확한 발음과 소신 있는 지도법으로 영암에선 실력파 영어선생님으로 이름을 얻었다.

영암F1조직위

한국에서 핀 다문화 아줌마의 힘! 이주여성 14명이 영암 F1을 찾은 외국 관광객을 위한 호텔 통역운영요원으로 선발돼 큰 힘을 발휘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인 마리벨 압신 씨는 "집안일과 병행해야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F1 대회 성공을 위해 일하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외국인에게 콜센터 안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 출신인 파토농곤 에이안(33·해남 북평면) 씨는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인 F1 대회에 숙박업소 통역으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9년에 전남 해남으로 이주해 온 파토농곤 씨는 필리핀의 명문 STI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필리핀에선 관광가이드로 직장생활을 했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고모의

영암F1조직위

12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마리벨 압신 씨는 F1 조직위 숙박교통안내 콜센터 요원으로 맹활약했다.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을 왔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해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을 익힌 후로는 유창한 영어실력과 결혼 전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해오기도 했다.

동료 · 외국인들의 칭찬에 큰 보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9년째 된다는 로린 다나오 다몬동(39) 씨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힐사이드 모텔의 카운터에서 일했는데 밥을 먹으러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다"고 말했다. 주된 업무는 숙박 시설, 인터넷 문제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세탁 등 호텔서비스에 관한 문의를 받는 일.

작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외국인 손님들의 항의도 빗발쳤고 그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텔 측의 불편함도 컸는데, 로린 다나오 다몬동 씨가 카운터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다. "모텔 사장님과 다른 스태프들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편해졌다고 감사인사를 하셨는데, 그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영어강사로 5년간 활동해 온 그는 "가사와 육아, 원어민강사 일을 하면서 호텔운영요원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다른 대한민국 아줌마들도 자원봉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지난해보다 나은 대회를 만드는 데 동참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내 능력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며 활짝 웃었다.

뒤에서 묵묵히 통역요원들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나카자와 노리코(44·서울 마포구) 씨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도시락을 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카자와 씨가 영암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부터다. 사무직으로 봉사에 참여했던 한국인 남편을 따라 일본어 통역요원으로 활약했던 것. 2005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그는 "남편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 올해는 사무직으로 지원했다"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강변 자전거' 낭만 싣고 기차가 떠납니다

서울~상주 '녹색 자전거 열차' 운행… 낙동강변 자전거길 "멋져요"

지난 10월 15일, 화창한 주말을 맞아 '녹색 자전거 열차'가 상주로 향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돌풍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 걱정이 앞섰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햇빛에 찰랑거리는 황금 들판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김창희

자전거 여행에 푹 빠진 참가객들. '자전거 수도' 상주에는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잘 꾸며져 있다.

깊어가는 가을, '녹색 자전거 열차'를 타면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다. 녹색 자전거 열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코레일관광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기차여행이다. 친환경에 대한 시대의 요구가 높아지는 요즘, 열차를 타고 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지역의 관광지와 음식을 체험해 봄으로써 문화여행도 겸할 수 있는 신개념 레포츠 테마관광열차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어 가면서 4대강을 따라 전국을 잇는 자전거 도로도 제 모습을 드러내 앞으로 녹색 자전거 열차는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열차에선 추억의 7080콘서트 · 레크리에이션

자전거의 메카 상주를 향해 서울역을 떠난 이번 녹색 자전거 열차에는 그리스 스페셜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한 스포츠 토토 직원,

한국에서 교생실습 중인 외국인,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자전거 동호회원들도 상주에서의 낭만적인 하루를 만끽하고자 함께했다.

열차 안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졌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위해서는 추억의 7080콘서트가, 아이들을 위해선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교실도 열려 즐거움을 더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 기차는 상주에 도착했다. 역에서는 성백영 상주시장이 직접 나와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지역 특산품을 선물했다. 자전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열차에서 자전거를 내렸고, 자전거가 없는 이들은 현장에서 자전거와 헬멧을 빌렸다. 준비를 다 마친 후에는 광장에서 함께 몸 풀기 체조를 했다. 모두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자전거 수도'라는 명성답게 상주에는 낙동강변을 따라 자전거길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경치를 구경하며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 왼쪽으로는 낙동강 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황금들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좋은 길을 달리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나란히 달리는 자전거들은 가을의 여유로움을 닮았다. 코스 중간 중간에는 자전거박물관, 경천대, 도남서원, 상주보 등 잠시 쉬어 가며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즐비해 더욱 신나는 여행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일행이 낙동강 상주보 위를 달리고 있다. 상주보의 기둥에는 자전거 모양을 새겨 넣어 눈길을 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여명도 참가

이번 여행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도 초청되었다. 40여 명의 아이들은 여행 내내 밝게 웃고 즐기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일일이 아이들에게 "행복하니? 오늘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야"라고 말해 주었다. 아이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숨겨 두었던 댄스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번 자전거 열차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열차여행에 참가한 한 외국인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 여행에 초대해 줘서 정말 고맙다"며 뿌듯해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전거 여행. 앞으로 4대강 물길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니 기대가 된다. 더욱 많은 사람이 자전거 열차 여행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G

글 · 김창희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4학년)

페이와 나탈리아 (미국)

"4대강 자전거길은 외국인들에게 멋진 경험"

이번 여행 전에 한국의 4대강 자전거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인 친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와서 보니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어 놀랐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풍경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많이 답답했었는데, 여기 와서 산과 들, 강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상쾌했어요. 자전거 박물관이나 상주보 등은 참 이색적이면서 흥미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소를 많이 본 것도 기억에 남네요."

'녹색 자전거 열차'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나요.

"물론이죠. 이 여행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열차에 타면서부터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더 좋아요. 제 친구들이 한국에 온다면 꼭 소개해 줄 겁니다."

뉴시스

'2011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개막행사로 10월 21일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신여성-근대의 패션리더' 패션쇼. 신여성들의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근대 신여성 패션 한복 '재발견'

10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한복의 새로운 변화 모색

각 시대별로 여성들이 열광했던 패션이 있다. 그렇다면 1920~30년대 근대화의 상징적 존재였던 신여성들의 필수품은 무엇이었을까. 10월 30일까지 열리는 '2011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은 1백년 전 경성을 누빈 신여성들의 패션과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2011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은 '한복, 근대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1920~30년대 경성(京城)을 오가던 신여성의 패션이 장식한다. 장소는 대표적인 근대 유산인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서구 문물이 도입돼 전통 한복의 다양한 변형이 나타나고 한복과 양장이 조화를 이루었던 근대 한복을 조망해 우수한 문화콘텐츠로서 한복의 활용과 세계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패션쇼와 기획전 등을 통해 '모던걸'이 추구했던 패션을 선보인다. 예술감독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서영희씨가 맡았다.

염동우 기자

개막행사로 열린 한복 패션쇼에는 최광식(앞줄 왼쪽 세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하객이 참석해 한복의 활용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획전에선 '신여성'들의 패션 한눈에

30일까지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기획전 '신여성—근대의 패션리더'은 신여성들이 '열광'했던 패션·소품 11점을 구경해 볼 수 있다. 특히 '모단걸(毛斷傑·modern girl)'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단발머리와 양말에 검정 구두, 양산, 자줏빛 숄, 시계, 패션잡지 〈신여성〉, 손목시계, 박가분 등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1920~30년대 의복 및 생활잡화 유물전시와 함께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1백년 역사의 학교 교복도 전시된다. 이화학당(현 이화여자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현 진명여자고등학교) 등 여학교 교복과 기호흥학회(현 중앙고등학교), 보성중학교(현 보성고등학교) 등 남학교 교복을 구경할 수 있다.

26일 오후 2시부터 문화역서울 284 RTO 공간에서 '한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열린다. 한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복 관련 부대행사도 빠놓을 수 없다. 26일에는 '2010 한복 페스티벌 패션쇼'에 참여했던 이서윤 디자이너가 현대적 옷감 소재와 전통한복의 디자인을 재해석해 제작한 한복을 입고 '교방살풀이춤'을 선보인다.

앞서 21일에는 개막 행사로 패션쇼가 진행됐다. 서울역이 처음 세워진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근대한복의 복식사를 재조명해 보는 자리였다. 패션쇼에는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 김영진, 이현경, 조진우, 류정민, 김진선 등이 참여했다.

중견·신진 디자이너 복식사 함께 조명

'신여성 모던걸' '무용가 최승희' '근대의 패션리더 여학생' 등 재창조된 한복 패션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최정심 원장은 "한복이 전통 의복이라는 편견을 넘어 우리 옷 한복의 우수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대별·인물별·소재별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G

글·박근희 기자

문의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www.hanboksarang.kr

신여성들의 패션소품들.
1 저고리 **2** 어깨허리통치마
3 박가분 **4** 가방 **5** 장신구
6 안경 **7** 우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내 음반을 그래미상 후보에 처음 올린 김영일 '악당이반' 대표

"K팝 아닌 국악도 넣은 K뮤직으로 승부"

한국 음악계에 경사가 났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상에 한국 음반이 후보에 오른 것이다. 그것도 국악 음반이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국악 음반이 세계무대에서 '큰일'을 낸 것이다. 그 중심엔 '악당이반'의 김영일 대표가 있었다.

악당이반

한옥에서 국악연주를 녹음하기로 유명한 그는 "한옥은 판소리와 가곡, 산조 독주가 모두 어울리는 맞춤형 스튜디오"라고 말한다.

"저에게 국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땅에서 국악은 모르는 음악이 아니냐'고 반문하지요. 국악 음반을 만들어본들 국내에서 겨우 수십 장 정도 팔리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가곡은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를 노랫말로 하는 전통 성악곡으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단소, 장구 등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아정(雅正)한 노래다. 김영일(49) '악당이반' 대표는 15년 전부터 홀로 심산유곡에 내려앉은 국악 가곡을 일구고 찾아 나섰다. 그러면서 녹음 원본을 계속 만들었다.

지성이면 감천일까. 지난 9월 초 김 대표는 우연히 자신의 이메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보낸 '정가악회 풍류Ⅲ-가곡'이 제54회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라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그래미상은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해마다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해 주는 상으로 영화 아카데미상에 견줄 만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적 권위의 음악상이 아닌가.

'정가악회 풍류'는 '월드뮤직'과 '녹음기술' 등 동시에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는 국내 음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특히 소외된 국악 음반으로 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가악회 풍류'로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성북동에 있는 주식회사 '악당(樂黨)이반'을 찾았다. 조용한 골목에 한옥을 약간 개조한 건물이었다.

그에게 '악당'은 얼추 알겠는데 '이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 그는 "원래 사진을 했는데 그때가 1학년 1반이라고 하면 음악을 하는 지금은 2학년 2반이다. 굳이 한자로 쓰자면 '이롭게 모여서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이반(利班)이다"라며 웃는다.

"2~3년 전부터 우리의 (음악) 모습을 보니 모조리 케이팝입니다. 가끔 음악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면 대부분 케이팝에 관심이 많더군요. 우리 음악의 앞날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계승 발

전시켜야 할 국악은 뒷전으로 밀리고, 참 큰일이구나 싶더군요."

김 대표는 이런 상황을 씁쓸하게 여기면서 "케이팝이든 대중음악이든, 클래식이든 국악이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우리의 음악이다. 차라리 '케이뮤직(K-Music)'이라고 해서 발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악 발전을 위해서는 "재능 있는 국악인 중에 상 운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국악을 하면서 음반 하나 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 음반 하나를 만들어주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 얼마나 신이 나서 노래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정가악회' 연주 모습. 이 음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의 대청마루에서 녹음했다.

미국에 에이전트 두고 틈틈이 정보 얻어

김 대표에게 어떻게 해서 그래미상을 노크했는지 물었다.

"지난 3월부터 무역협회에 정식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에 에이전트를 두었지요. 그 에이전트가 그래미상에 대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미상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미국의 에이전트가 제게 틈틈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반드시 팔리고 있어야 하고, 그래미상 운영자 70퍼센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또 월드뮤직 부문에서 한 개의 상을 준다는 것 등을 전해 들었지요. 결국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을 했고 이번에 뜻밖의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미상 측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후보에 오른 음반은 전통 가곡 '우조 이수대엽(羽調二數大葉)' '태평가' '편수대엽' 등 9곡으로, 여류명창 김윤서씨의 노래와 국악실내악단 '정가악회'의 연주로 담았습니다. 특히 이 음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의 대청마루에서 녹음을 했지요. 한옥은 말 그대로 맞춤형 스튜디오입니다. 마당 넓은 집에서는 판소리가 어울리고 대청 넓은 집에서는 가곡과 같은 음악이 기가 막히게 어울립니다. 또 한옥의 사랑채와 안채에서는 산조 독주가 어울립니다. 아마 이런 녹음 기술 때문에 이번 '서라운드 사운드' 부문에 후보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그래미상은 오는 12월 말에 본선을 치른 뒤 내년 2월 시상식을 갖게 된다.

김 대표는 대학에서 사진학과를 나와 일찍부터 초상 작가로 출발했다. 그런 그가 국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4년 한 잡지사로부터 젊은 음악가들의 인물 사진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부터였다.

"당시 채수정씨라는 국악인의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고 채씨는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단가 편시춘)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셔터를 누를 수가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훌륭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찍어 봤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몸이 얼어붙었다고나 할까요. 결국 사진을 못 찍고 채씨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국악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저절로 국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소리꾼을 찾아서 15년째 전국 각지 돌아

이후 녹음기를 들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소리꾼들을 찾아 나섰다. 지리산에 북을 들고 들어가 7년이나 안 나온 배일동씨 등 산자락에서 홀로 가곡을 부르는 외로운 국악인들과 만나 밤을 새우며 이야기하고 소리를 채록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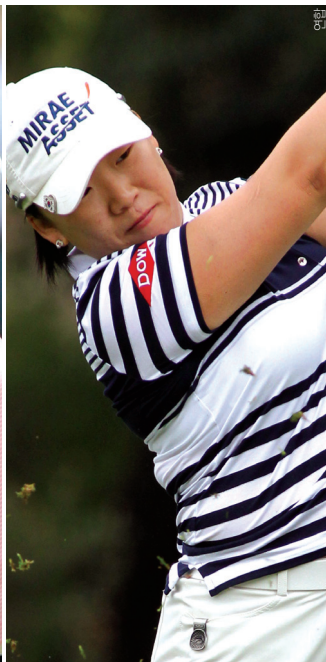
그렇게 소리 채집자로 돌아다니다 보니 마스터 테이프가 3백 장(음반 1백 장 분량)에 이르렀고, 2005년엔 아예 음반 제작사를 차렸다. 그동안 사진으로 번 돈을 몽땅 투자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매년 10여 장씩 꾸준히 음반을 제작했고 지금까지 52장의 음반을 냈다.

그는 "국악 음반 1백 장을 찍으면 판소리는 10장, 산조는 20장 정도 팔린다"면서 "전망은 밝지 않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가치를 들고 매년 그래미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김 대표는 매년 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미뎀(Midem)이라는 음반 박람회에 5년째 참석하고 있다. 우리 국악 음반을 묵묵히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G 글·김문 (서울신문 편집위원)

88년 첫승 구옥희

통산 25승 박세리

통산 8승 김미현

'세리 키즈' 선봉 신지애

여자골프 1백승 일군 최나연

장하다 LPGA 100승! 이젠 도전 200승

한국여자골프, 23년 만에… '세리키즈' 쏟아져 기록 빨라질 듯

미국 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서 구옥희가 한국 여자 선수로서 첫승을, 박세리는 최다승(25승)을, 그리고 최나연은 1백번째 우승을 기록함으로써 한국 여자프로골프의 역사를 새로 썼다. 23년 걸린 한국 여자골프의 LPGA 1백승. 과연 2백승의 위업은 언제쯤 이뤄질까.

최나연(24·SK텔레콤)이 지난 10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막을 내린 LPGA 아시아투어 사임 다비 대회에서 한국 여자선수 누적 1백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구옥희(55·KLPGA 전 부회장)의 1988년 첫승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아홉 수 고비'는 예상보다 높았다. 작년만 해도 10승을 추가하며 통산 98승을 기록했던 한국 여자골프는 올 상반기 내내 승수를 더하지 못했다. 또 하반기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준우승은 서희경)이 메이저 우승을 거뒀지만 아홉 수 고비를 '이 중(99승)'으로 겪기도 했다.

이제 '골프 강국' 한국이 얼마나 빨리 2백승 고지에 도달하느냐가 관심거리다. 한국은 미국 LPGA 무대에 30명 안팎의 골퍼가 활약하고 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신지애는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올시즌 한국 여자골프가 다소 부진했지만 두꺼운 선수층을 감안하면 '23년 걸린 1백승'보다 훨씬 빨리 2백승 위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저변에는 한국 골프를 세계에 알린 구옥희 박세리 등 '선구자'들의 공로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의 고단함' 잊게 한 박세리 최다 25승

구옥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스탠더드레지스터콰이즈 클래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LPGA투어 우승자가 됐지만 당시는 골프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올림픽의 열기 때문에 관심 밖이었다. 개척자이면서도 무명에 가까운 실정이었기에 구옥희

는 한국 여자 골프 LPGA 진출사에서 1세대라기보다는 '0세대', 혹은 '선사시대'(구체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한국 여자골프가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박세리부터다. 1997년 미국으로 건너간 박세리는 Q스쿨에서 정규투어 시드를 확보했고, '루키 시즌' 4승을 건져 올려 '올해의 신인상'을 받으며 신데렐라로 등극했다.

이후 박세리의 영향으로 김미현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유학했던 박지은과 호주 유학파인 박희정, 그리고 일본 유학파인 한희원 등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어에 합류했다.

2세대(2003~2007년)는 정일미 강수연 양영아 이민아 김주미 장정 이미나 강지민 김주연 김영 이선화 등의 미국 진출 시기를 꼽는다. 이들은 1세대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 선수가 대규모로 미국에 진출, '1인 다승 시스템'이 아닌 '다인 1승'의 시대를 열게 된다.

2008년 이후 '세리 키즈'들 美투어 점령

2세대와 3세대 사이에 '낀 세대'가 있다. 안시현 이지영 홍진주 등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열린 미국 LPGA투어인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기존 CJ나인브릿지클래식)에서 우승하며 미국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Q스쿨이나 퓨처스투어 경험을 통해 어렵게 미국 본선 무대에 선 프로보다는 경험도 적고, 문화적 부적응도 클 수밖에 없어 이렇다 할 추가 성적을 내지 못했다.

3세대(2008~현재)는 본격적인 '세리 키즈'의 미국 진출이다. 또한 이들부터가 '1백승+α'를 책임질 세대들이다. 지은희 최나연 김송희 신지애 오지영 박인비 김인경 등 1988년생이 대거 투어를 점령한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2의 박세리'를 목표로 골프를 시작한 부류다.

미국 투어에 주력하지만 일본이나 한국도 투어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규정된 대회 수를 채워 가며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문어발 세대'다.

제4세대(2011년 이후)는 골프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세대다. 서희경, 유소연, 제니퍼 송(송민영), 제니 신(신지은), 양자령 등을 들 수 있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0세대', 미국이라는 골프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의 1세대', 골드 러시처럼 1세대의 활약에 자극을 받아 태평양을 건넌 '2세대', 박세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3세대의 세리 키즈'를 뛰어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골프 역사로 따지면 '세리 키즈의 키즈', 이른바 박세리의 손녀세대뻘 되는 '웰메이드(Well-made)'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박세리는 스스로도 "노는 법을 몰랐다"고 할 만큼 골프에만 올인했다. 그러나 1백1승, 나아가 2백승을 달성하게 될 4세대 골퍼는 피겨의 김연아처럼 미모와 골프 실력, 글로벌 시대의 어학 능력, 완벽한 자기 관리 능력 세대다.

'골프 올인' 세대는 옛말… 멋진 신세대 등장

예전에는 하루에 볼 1천개 친 것이 큰 자부심이고, 좋은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었지만 이제는 볼은 1백개만 치고 필라테스, 요가, 마사지,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쪼갠다. 1백승 후 멋진 영어 인터뷰를 한 최나연도 영어교사와 체력트레이너를 투어에 동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자골프계에서도 '빌리언달러(1천만달러) 베이비'라 불리며 타이거 우즈와 비견되곤 했던 미셸 위처럼 '엄친딸'이 성공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 계발을 완벽하게 하면서도 골프, 취미나 여가활동까지 자기 것이라면 버리지 않겠다는,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야무진 세대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G

글 · 장수진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짐승돌의 파워 군무… 아시아가 반했다!

동남아 투어 콘서트 반응 후끈… 일본선 드라마 주연 캐스팅도

짐승돌 2PM이 아시아 여심(女心)을 뒤흔들고 있다. 멤버 택연과 찬성이 각각 일본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투어 콘서트에도 각국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8일 대만 공연은 1만여 팬들의 호응 끝에 막을 내렸고, 다음달 예정된 인도네시아 공연은 티켓 오픈 1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지난 10월 8일 대만에서 그룹 2PM의 아시아 투어 공연 '2PM 핸즈업 투어 콘서트'가 열렸다. 공연장에 운집한 1만여 명의 팬들은 공연 시간 내내 목청 높여 2PM을 외쳤다. 한국어로 된 노랫말을 따라 부르는 팬들은 물론이고, 곳곳에 눈물을 보이는 팬들도 있었다.

자카르타 최대 규모의 망가두아 광장(Mangga Dua Square)에서 11월에 열릴 인도네시아 공연은 티켓 오픈 1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2PM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예정된 공연 역시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

12월 5일부터 오사카 등 일본 4대 도시 투어

2PM의 인기는 일본에서 더욱 높다. 2PM은 가요 프로그램, 드라마, 어디든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멤버 찬성은 오는 28일 막을 올리는 일본 드라마 '괴도로얄(TBS)'에 캐스팅됐다. 지난 9월 김태희와 함께 '나와 스타의 99일(후지TV)'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택연에 이어 두번째다.

인기 게임을 원작으로 한 '괴도로얄'은 4명의 젊은이가 모여 미션으로 온갖 보물을 훔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찬성은 이 드라마에서 육체파 잭 역을 맡았다.

일본 언론들은 "찬성이 태권도 3단과 검도 2단의 무술 실력을 갖췄다"며 "액션 장면에서 멋진 발차기를 선보여 출연자와 스태프를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가와시마 류타로 프로듀서 역시 찬성의 액션을 칭찬했다. 찬성은 "일본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PM은 지난 5월 일본에서 데뷔 싱글로 오리콘 차트 4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발매 1일 만에 오리콘 DVD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PM의 일본 데뷔 DVD는 발매 열흘 만에 3만5천장을 돌파했으며, 당초 1회로 계획했던 쇼케이스는 폭발적인 성원 속에 3회로 늘어났다.

도쿄의 료고쿠 국기관에서 열린 쇼케이스 '1st contact in Japan'에는 약 2만5천명이 몰려 한국 아티스트 데뷔 사상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소녀시대의 2만2천명보다 3천명 많은 수치였다.

2PM은 다음달 초 세번째 싱글인 '울트라 러버'를 출시한 후 일본 투어를 진행한다. 공연은 2PM을 기다리는 일본 내 팬들을 위해, 12월 5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나고야, 사이타마, 후쿠오카 등 4대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선DB

한류스타 2PM의 인기는 일본에서 가장 높다. 도쿄의 료고쿠 국기관에서 열린 2PM의 쇼케이스 '1st contact in Japan'에는 약 2만5천명의 팬들이 몰려 한국 아티스트 데뷔 사상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사진은 2PM을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일본팬의 모습.

"강렬한 퍼포먼스… 이제껏 보지 못한 아이돌"

K팝에 열광하는 해외팬들은 K팝의 매력으로 하나같이 "파워풀한 군무(群舞)"를 꼽는다. 자국 가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강렬한 퍼포먼스가 한국 아이돌의 인기 요인이라는 것이다.

2PM은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룹들이 즐비한 국내 가요계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춤실력을 자랑한다. 이들이 선보이는 안무는 차라리 곡예에 가깝다. 뒤편에서 달려 나온 멤버가 앞에 서 있던 멤버를 뛰어넘고, 무대 여기저기를 이동하며 공중돌기를 선보인다.

대표곡 하트비트(Heartbeat)는 특히 인상적이다. 멤버 전원이

검정 계열의 의상을 입고 짙은 눈화장을 한 채, 시체처럼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자로 잰 듯한 빈틈 없는 군무는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일본 시부야 레코드의 한 관계자는 "일본 팬들이 케이팝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제껏 보지 못한 파워풀한 무대를 그들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PM의 거친 매력은 일본 내 여성방송인들도 사로잡았다. 2PM은 지난해 후지TV 프로그램 〈도쿠다네(特種·とくたね)〉에 출연했다. '하트비트'를 열창하며 택연과 닉쿤이 상의를 풀어 헤치자 4명의 MC들은 어쩔 줄 몰라했다. 방송사 사옥 앞 현장 인터뷰 도중 찬성이 복근을 공개했을 때는 여성 진행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고 2PM을 남성미만 있는 마초 그룹으로 치부하면 곤란하다. 부드러운 미성(美聲)과 함께 수준급의 노래 실력도 겸비했기 때문이다. 리드보컬인 준수를 비롯한 2PM 멤버 전원은 뛰어난 가창력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의 여심은 '배용준, 송승헌으로 대표되는 한국 남자 특유의 다정다감함'과 '강한 남성의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2PM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남성미 못지않은 뛰어난 노래실력도 자랑

지난 10월 4일 2PM은 한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2PM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 미스에이(miss A)와 함께 글로벌 CF에 출연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인터랙티브 무비(쌍방향 소통 영화) 〈안녕〉에도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안녕〉은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경치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 위촉식에서 한국관광공사 측은 "2PM이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범아시아적 인기를 누리고 있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G

글·박소영 기자

조선DB

수능 코앞에… '인체 시계'를 조절하라

시험시간에 맞춰 일정시간에 자고 깨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올해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남은 기간은 15일 남짓. 지금부터는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보다는 수능 당일에 맞춰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에 맞춰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인체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어 놓는 것이 좋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습관을 길러 놓도록 하자.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은 인체리듬을 깨는 가장 나쁜 행동이다.

식사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도 요령이다. 특히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에 쌀밥과 된장국 등의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짜면 도움이 된다. 뇌 활동에 좋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씩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말자.

컨디션 못지않게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집중력이다. 스트레스는 집중력의 가장 큰 적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아침식사는 꼭…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로

순간적인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암기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몸이 적당히 긴장하면서 교감신경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어 읽거나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하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생리통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시험 당일 생리통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평소 생리통이 심하다면 생리 시작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처방을 받도록 한다.

시간이 다급하다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집중력 향상 의약품이나 식품을 남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평소에 먹던 식단대로, 평소 습관대로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위로 쭉 뻗어 10초간 유지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수능 보기 며칠 전 자신의 불안한 점을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 시험 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G

글 · 손수원 기자

조선DB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에는 컨디션 조절이 승패를 좌우한다. 시험 당일의 상황에 맞게 미리 인체 시계를 맞춰두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집중력 키우는 5가지 습관

1 소리 내어 읽거나 쓰면서 오감을 자극해 공부하라.
2 아침식사를 꼭 하라. 아침식사를 거르면 두뇌에 혈당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이 떨어진다.
3 잠들기 전 20분 동안 암기하라.
4 가볍게 걸어라. 뇌를 깨우는 데 효과적이다.
5 적당히 긴장하라.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소중한 자료를 기증 받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개항부터 현재까지를 4개 대주제로 나누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 대한민국의 태동

자료기증 안내

대 상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유물·기념품·생활용품 등

문 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02-3704-994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정리실 (02-590-6386)

홈페이지
www.museumrok.go.kr

※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가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012년 12월 광화문국가상징거리(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Committe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stablished

1930년대 경성 배경 〈모던보이〉

‘한심남’을 독립투사로 만든 힘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한 청년의 사랑과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추적을 그린 영화 〈모던보이〉(2008년작 · 감독 정지우)는 ‘시대의 운명 앞에 과연 개인은 혼자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란 다소 무거운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영화는 주제의식에 비해 경쾌하고 스피디하게 전개되는데 그 중심에 주인공 모던보이 이해명(박해일 분)의 좌충우돌이 큰 몫을 한다.

일러스트 · 신용호

때는 바야흐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세상은 전쟁으로 치닫고 역사의 향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시절이었다. 친일파 아버지 덕분에(?) 조선총독부 건설과 제1서기관으로 근무하는 이해명은 나라와 역사 같은 건 상관 없이 자신을 로맨티스트라 부르며 말초적 향락에 세월을 보내는 젊은이다.

그런 그가 한눈에 반한 여인은 ‘구락부(클럽)’의 댄서이자 양장점의 재봉사이자 유명 일본 여가수의 그림자 가수인 조난실(김혜수 분). 그러나 그녀의 실제 정체는 ‘사애단’이라는 지하 독립운동 테러단체의 수장이었다. 여기서부터 모던보이 이해명의 삶은 가짜 천진난만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국가와 민족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된다.

영화는 전편에 걸쳐 1930년대 최첨단의 아이콘이던 모던보이의 삶을 보여준다. 영화는 1930년대 식민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서구적이고 사치스러운 이해명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날아갈 듯한 양복차림에 먼지 하나 없는 백구두, 하얀 중절모를 갖춰 입은 이해명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점검한다.

친일파 아들과 독립운동 댄서의 만남

이해명의 패션컬렉션은 오늘날 연예인의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데 이는 실제 1930년대 잘나가던 모던보이의 모습이기도 하다. 당시 모던보이들은 요즘 사람들 이상으로 유행에 민감했고 브랜드를 따졌다.

모던보이(Modern Boy)란 말은 1930년대에 유행하던 말로 모던걸(Modern Girl)과 한 짝을 이루어 주로 새로운 문물에 경박하게 동조하고 최첨단 유행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였다.

모던걸과 비슷한 말로는 신여성이란 단어가 있지만 신여성이 좀 더 지사적이고 선구자적 의미를 가졌다면 모던걸은 최첨단 향락을 무조건 따라하는 부류로 치부되었다. 실제로 모던걸이라 불리던 여

조선DB

잘 차려입은 모던보이들. 1930년대 모던보이들은 요즘 사람들 이상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브랜드를 따졌다.

성군들은 대개 카페 여급, 신문물을 받아들인 기생 등이 많았다. 영화 속에서 조난실은 처음에는 모던걸로 보이나 알고 보니 신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한편 모던보이는 신문물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인텔리 남성군들로 한복보다는 양복을 선호하고 모던걸의 뒤꽁무니를 좇아다니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컬었는데, 이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착취 대상이었기에 소비수준에 비해 경제수준은 형편없었고 당연히 대학을 나온 인텔리 남성들이 취직할 마땅한 자리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모던보이는 적극적 친일을 통해 돈과 알량한 지위를 확보한 층과 자존심상 친일행위는 못하지만 새로운 문물은 마냥 좋은 룸펜형 모던보이로 나누어진다.

명품 좇는 모던보이 · 모던걸에 '쓴웃음'

영화 속 이해명은 두말할 것 없이 친일파의 아들로 전자에 속한 모던보이였다. 그는 친일하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자신이 친일을 한다는 자각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가 총독부에 근무하는 것도 무언가 뜻이 있어서라기보다 룸펜보다는 보기 괜찮아서 택한, 직업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를 얼떨결에 독립운동에 참가시키고 영화 말미에는 진정한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조난실에 대한 사랑이었다. 영화 속 조난실은 모던걸로서 못하는 게 없는 여인이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양복 만드는 솜씨까지 초일류인 데다가, 여자 몸으로 독립운동단을 이끄는 카리스마도 겸비했다.

영화 속에서 이해명과 조난실이 처음 만나는 장소는 댄스홀인데 실제로 1937년까지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댄스홀은 없었다. 당시 일본에는 50여 개가 넘는 댄스홀이 있었다는데 한국에는 합법적으로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937년 잡지 〈삼천리〉 1월호에는 경무국장에게 서울에 댄스홀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서가 실리기도 했다. 이 청원서의 제출자는 레코드회사 문예부장 이서구와 연극배우이자 유명한 '비너스' 다방의 마담이었던 복혜숙, 카페 여급, 영화배우, 기생 등이었다. 그야말로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대표 인물군들이 댄스홀에 대한 열망을 숨김없이 표출한 것이다.

전쟁 탓이었는지 합법적 댄스홀은 없었지만 1937년 당시 서울에는 많은 카페들이 있었고 이 카페들은 종종 댄스홀로 급변하기도 했다. 주로 추던 춤은 '촬스톤'이라는 사교춤이었고 열광하던 음악 장르는 재즈였다. 영화 속에서도 조난실은 재즈에 맞춰 춤을 추고 재즈곡을 노래한다.

하지만 조난실이 영화 초입에 부르는 일본 노래는 최근 일본 뮤지션이 작곡한 재즈곡이고, 영화 말미에 이해명과 조난실의 사랑의 주제곡이 되는 노래는 1922년에 발표한 김소월의 시 〈개여울〉에 1966년 작곡가 이희목이 멜로디를 붙인 곡을 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개여울〉은 1970년대 가수 정미조가 불러 유행을 하기도 했다.

일본어 재즈에서 소월의 시 〈개여울〉로

이 노래는 조난실이 그림자 가수로 부른 일본어곡 레코드를 이해명이 틀어놓고 따라 부르자, 난실이 해명에게 그 곡의 한국어 가사—김소월의 시—를 속삭여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애틋한 장면에 쓰였다. 〈개여울〉의 내용은 이러하다.

당신은 무슨 일로 / 그리합니까? / 홀로히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 포기가 / 돋아 나오고 / 강물은 봄바람에 헤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 안노라시던 /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 나와 앉아서 /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 안노라십은 굿이 / 잊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노래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을 암시하듯 쓸쓸한데, 1960년대 노래임에도 1930년대 풍경을 정교하게 복원해 낸 영화의 장면과 어울려 짙은 감동을 안겨준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 일몰. 둥근 갈대군락들 사이로 S자를 그리며 미끄러져 나가는 물길을 볼 수 있다.

전남 순천만

살랑살랑 갈대들의 노란 손짓 고즈넉한 고찰에선 두손 모으고…

광활한 갈대숲이 있는 순천만.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숲을 걷노라면 가을이 깊어짐을 실감한다. 갈대숲뿐만 아니라 순천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통마을도 있고 선암사와 송광사라는 두 천년고찰도 있다. 장어구이, 짱뚱어탕 등 맛있는 음식은 더욱 풍성한 여행길을 만들어준다.

순천만 갈대숲에 마련된 체험용 덱을 따라 산책하듯 탐방을 즐길 수 있다.

전남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있는 순천만은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이며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람사협약'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 해수역은 무려 75제곱킬로미터, 여기에 총 면적 5.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갈대 군락이 펼쳐져 있다.

이 거대한 순천만을 여행하는 첫걸음은 대대포구에서 시작한다. 이곳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갯벌과 철새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물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아기자기한 체험시설이 많은데다 갯벌과 갈대, 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어 순천만을 탐방하기 전 돌아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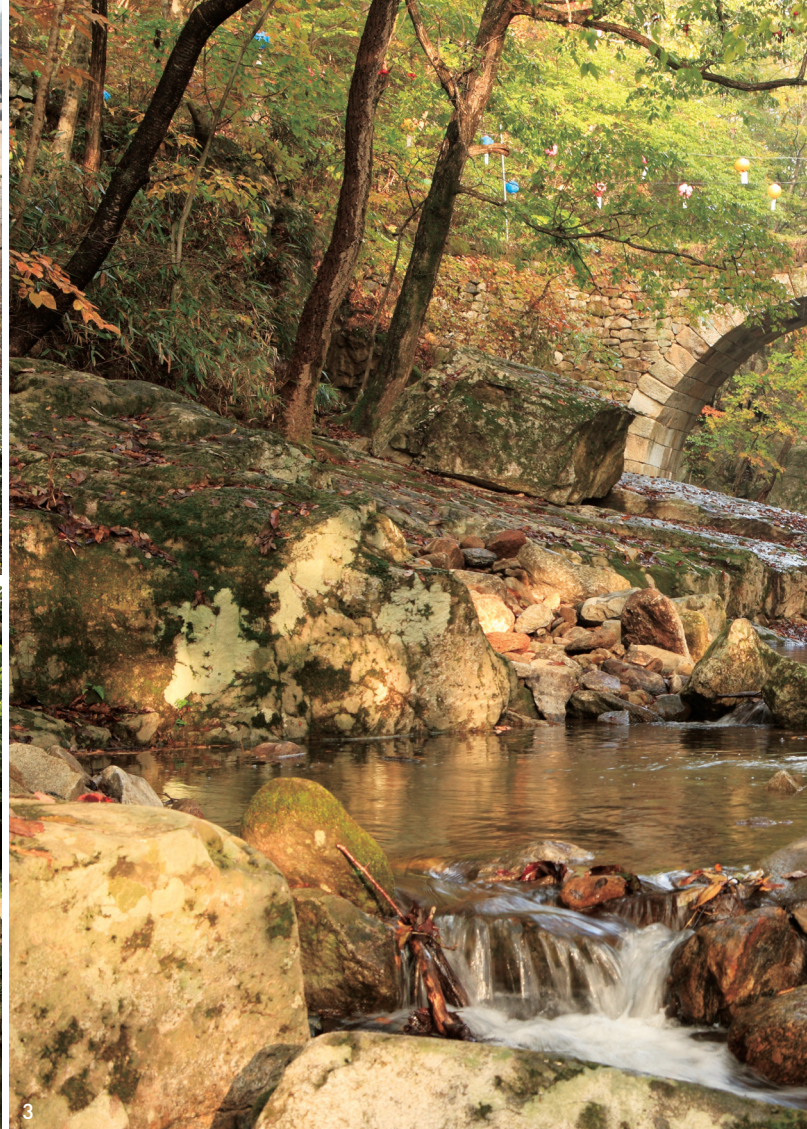
자연생태관을 나서면 본격적인 갈대숲 탐방이 시작된다. 순천만 갈대밭을 여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걷기다. 갈대숲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산책용 덱이 만들어져 있어 힘들이지 않고 광활한 갈대밭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생태체험선 타면 연안습지 여행 가능

생태체험선을 타고 연안습지를 만날 수도 있다. 순천만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순천만 앞바다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약 35분 정도가 소요된다. 갈대열차를 타고 갈대밭 사이로 펼쳐진 둑길을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대대포구 주변 둑길을 돌아보는 방법도 있다.

이왕 순천만에 갔다면 용산전망대에 올라볼 것을 권한다. 용산은 용이 하늘로 오르다 순천만 풍광에 반해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야트막한 산이다.

갈대밭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만 더 걸으면 전망대 정상에 닿을 수 있는데, 이곳에 서면 둥근 갈대군락들 사이로 S자를 그리며 미끄러져 나가는 물길을 볼 수 있다. 해질 무렵이면 수많은 사진애호가가 순천만의 낙조를 담기 위해 찾는 촬영포인트이기도 하다.

순천만뿐 아니라 순천에는 보고 다닐 곳이 넘쳐난다. 선암사와

1 낙안읍성. 조선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2** 송광사.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거찰이다. **3**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승선교.

송광사, 낙안읍성의 고즈넉한 풍경은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여유를 찾게 해준다.

조계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절이다. 백제 성왕 때인 529년 아도화상이 세운 고찰로 태고종의 본산이다.

선암사·송광사는 8킬로미터 산길로 연결

매표소에서 절까지 이어지는 숲길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이팝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 팽나무, 조팝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가 우거진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기분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승선교가 있다. '선녀들이 승천한다'는 뜻을 가졌는데, 아치형의 다리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답다.

선암사 반대편의 조계산 자락에 송광사가 자리한다.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삼보사찰(三寶寺刹)로 꼽히는 명찰로, 국사 16명을 배출했다. 영정을 봉안하는 국사전과 목조삼존불감, 고려고종제서 등 국보 3점과 하사당, 영산전 등의 보물 16점 등 국가문화재 21점이 있다.

선암사와는 굴목이재라 불리는 산길을 통해 이어지는데, 산길은 약 8킬로미터 정도로 부지런한 걸음으로 3시간이면 충분하다. 산길은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선암사 쪽에서 오르는 것이 편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낙안읍성에도 가보자.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통마을이다. 웅장한 성문을 지나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흙벽에 잿빛 초가지붕을 인 초가집들. 돌담 사이로 작고 예쁜 고샅길이 나 있고 고샅길마다 몇백 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서 있다. 이리저리 얽혀 있는 비좁은 고샅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푸근해진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전시와 관람을 위해 만들어놓은 민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마을이다. 주민이 초가에서 생활하며 민박집과 주막, 기념품 가게 등을 운영한다.

마을의 정경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벽길을 걸어봐야 온전히

여·행·정·보

가는 길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에서 순천행 버스가 30~4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승용차는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에서 나오면 된다. 국도 2호선을 타고 순천시내와 청암대학교 앞 삼거리를 지나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순천만 도로표지판이 나온다. 선암사는 호남고속도로 승주IC로 나와 857번 지방도를 타면 된다. 857번 지방도를 따라 벌교 방면으로 내려오면 낙안읍성이다.

잠잘 곳 순천만 쪽은 숙박 시설이 고만고만하다. 순천시내에서 묵는 것이 좋다. 호텔급으로는 **에코그라드호텔**(061-811-0000), **로얄관광호텔**(061-746-0001) 등이 있다. **갈대밭사랑채**(070-8876-3363)에서 한옥체험을 할 수도 있다. 선암사 앞에도 **조계산장**(061-751-9200) 등 조용한 여관이 많다.

먹을 곳 순천의 별미 짱뚱어탕은 순천만에 위치한 **순천만가든**(061-741-4489)이 유명하다. 장어는 대대포구에 있는 **강변장어구이집**(061-742-4233)과 **대대선창집**(061-741-3157)이 잘한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주막거리**에서 한정식과 파전, 동동주 등을 맛볼 수 있다. 선암사 앞 산채식당으로 **장원식당**(061-754-6362), **길상식당**(061-754-5599), **선암식당**(061-754-5232) 등이 있다. 조계산 굴목이재 등산코스에 자리한 **조계산보리밥집**(061-754-3756)도 이름난 곳이다. **진일기사식당**(061-754-5320)도 유명하다. 7천원짜리 백반에 반찬이 13가지 푸짐하게 나온다.

볼 수 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1시간 정도다.

순천시내에 자리한 순천드라마 세트장은 2006년에 개장한 오픈 세트장이다. 드라마 〈자이언트〉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등 시대극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대상을 만날 수 있다.

순천의 60~70년대를 그대로 재현한 소도읍 세트장부터 60년대 태백 탄광마을, 70년대 서울 달동네, 80년대 서울 변두리를 완벽하게 재현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즐겁다.

드라마 마니아라면 극중 주인공의 흔적을 찾으며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처음부터 관광지 목적으로 제작된 촬영장이기 때문에 알차게 구성되었다.

순천은 맛도 풍성하다. 별미 중 별미는 짱뚱어다. 된장을 푼 물에 시래기, 호박, 무 등을 넣고 끓여 탕으로 먹는다. 짱뚱어는 갈지 않고 통째로 넣는다.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 처음 먹는 사람도 거부감이 없다. 속살은 부드럽다 못해 촉촉하다. 들깨 향이 향긋하게 우러나는 국물 맛은 개운하다.

장어구이·짱뚱어탕과 산채정식은 별미요리

장어도 빼놓을 수 없다. 대대포구 앞에 장어구이집이 많다. 순천만 갯벌장어는 흙냄새와 비린내가 전혀 없고 육질이 쫄깃하다. 지방이 적어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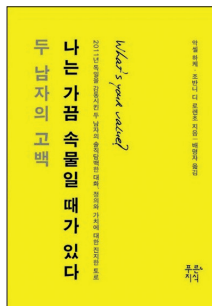
선암사 앞 상가 지구에는 조계산에서 자란 산나물로 만든 산채비빔밥, 산채정식 등을 내는 집이 많다. 어느 집에 가나 후덕한 전라도 인심을 맛볼 수 있다. G

글과 사진·최갑수 (시인·여행작가)

바로잡습니다

116호 '공감여행-동해' 편에 실린 내용 중 '용추폭포가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삼척부사 유한전은 폭포 하단 절벽에 '용추'(龍湫)라는 글을 새겼다'에서 '유한전'은 '유한준'으로, '글을 새겼다'는 '글을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나는 가끔 속물일 때가 있다〉

솔직해서 내 얘기 같은 '속물' 대화록

악셀 하케 · 조반니 디 로렌초 지음
푸른지식 펴냄 · 1만4천5백원

솔직해질 때가 있다. 자주는 아니고 간혹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럴 때 대체로 교양인인 척하던 사람들이 드러내는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속물과 그리 다르지 않다.

자신을 속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기실 속물은 겉으로 드러내는 가치와 속으로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겉으로는 고상하고 여럿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심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을 속물이라 말한다.

독일의 두 언론인 악셀 하케 & 조반니 디 로렌초가 좌담한 내용을 정리한 〈나는 가끔 속물일 때가 있다〉는 그래서 흥미롭다. 남들이 부러워할 명예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물이라 말하다니 참 대단하다. 그렇다고 늘 속물인 것은 아니고 가끔 그렇단다. 얼추 짐작이 가지 않는가. 가능하면 공동체적 가치에 동의하지만 때로는 개인적 욕망에 충실하기도 하다는 말로 들린다.

정치문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젊은 날에는 정치와 혁명에 관심이 많았지만 나이 들면서 자꾸 거리를 두게 되었다. 저녁에 노동조합 간부와 만나 이야기하면 그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가도 다음날 아침 신자유주의자를 만나면 그의 말에 고개를 주억거린다.

그러면 속물이 아닐까? 아니다. 로렌초는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형편없는 속물로 변해간다는 기분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누구나 환경문제를 고민한다. 작은 실천이 절실하다.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다. 하케는 말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때때로 내게 안정감을 준다. 불안감을 달래고자, 내면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고자, 위험에 빠진 지구를 위해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기분을 느끼고자, 어떤 재앙이든 언제나 막을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자 나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근데 잘하다가도 요구르트병을 씻을 적마다 갈등한다고 한다. 병 씻는 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느냐, 그냥 버리는 편이 환경에 더 나을 거야, 많이 먹지도 않는데 라며. 분명히 속물인데, 어찌 비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숨은 모습이라 그러할 터다.

두 사람이 자신의 속물근성을 드러내놓고 말할 때마다 멋쩍어진다. 이렇게 까발리면 속물이라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성찰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칭찬하게 된다.

정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케는 성공했다. 하룻밤 강연으로 간호사 한달치 월급보다 많이 벌기도 한다. "이렇게 성공한 내가 대견하고 기쁘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속물이다. 이어지는 말이 울림이 크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지금껏 고생스럽게 육체노동을 했고 내 나이에 벌써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또래의 건설 노동자보다 내가 더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묻고 있어서다.

사소한 고민의 귀결점은 '정의란 무엇인가?'

읽으며 기분 좋아진다. 우리하고 역사나 문화배경이 다른데도 상당히 공감하며 읽게 된다. 이들도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들의 부모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세대다. 부모세대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서 벗어나려 용을 썼다.

이만하면 비속어로 말하자면, 꼰대에 꼴통에 속물이 되고도 남을 만하다. 하지만 스스로 속물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속물이 아니다. 여전히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 하케가 아래처럼 말했다.

"만약 정의가 실현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 내 생각에 우리가 정말 신경써야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모두가 그 에너지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발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세조에게 '너'라고 했던 신하

요즘 TV에서 <뿌리깊은 나무>라는 사극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태종과 세종의 갈등으로 시작해 <훈민정음> 창제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고 하니 그 시기에 특히 관심을 가져온 입장에서 왠지 더 눈길이 간다.

그 시기를 들여다보면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정인지(鄭麟趾·1396~1478)를 첫손가락에 꼽을 수밖에 없다. 그는 사람 잘 보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태종이 1414년 문과에서 직접 장원으로 꼽은 인재다. 열아홉에 장원급제한 것이다. 훗날 세종이 왕위에 올라 태종이 상왕으로 '임금훈련'을 시키고 있을 때 병조좌랑 정인지가 두 임금 앞에 불려왔다. 이때 태종은 먼저 정인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그대 이름을 들은 지 오래나, 얼굴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한 다음 한동안 얼굴을 뜯어본 다음 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인재를 얻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없는데 정인지는 크게 등용할 만하다."

<고려사> 등 세종의 주요 편찬사업 주도

이후 세종은 실제로 정인지를 중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정인지는 관리로서의 이재(吏才)보다는 학재(學才)가 출중했기 때문에 세종은 정인지를 주로 이 분야에 배치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인지는 <용비어천가>를 지었고 <고려사>, <역대병요>, <자치통감훈의> 등 세종시대의 중대 편찬사업을 주도했다. <훈민정음>의 서문을 풀이한 것도 정인지다.

형조·예조·이조·공조 판서 등을 두루 거친 정인지는 문종 때 요직 중의 요직인 병조판서에 임명됐다. 그러나 역사의 파고에 정인지도 휩쓸리게 된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이때 정인지는 수양대군(훗날의 세조) 편에 선다. 곧장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세조가 즉위하자 정인지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에 오른다.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다 역사요, 이야기다. 뛰어난 재능과 출세,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이 있었다. 세조 쪽에 줄을 섬으로써 사실 정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다. 학재가 뛰어난

일러스트 · 유재일

태종 때 열아홉에 장원급제로 벼슬길
뛰어난 학재로 왕들의 총애받아 요직 차지
계유정란서 세조 쪽에 줄서 영의정까지 올라
재산 늘리기를 좋아해 당시 여론은 비판적

때문이었는지 정인지는 세조에게도 할 말은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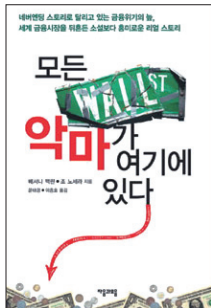
세조3년에는 불교책의 간행에 결사 반대하다가 충청도로 유배를 가기도 했고 술자리에서 세조에게 너(爾)라고 했다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젊어서 <역대병요>를 함께 편찬했고 <훈민정음> 창제 때도 비밀작업을 함께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었겠지만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정인지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세조를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실록이 전하는 그에 대한 평가다. "정인지는 성품이 검소하여 자신의 생활도 매우 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만석이 되었고 심지어 이웃 사람의 것까지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당시 여론이 이를 비판적으로 여겼다." 역사와 사람에게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왜 反월街 시위를 하는가

베서니 맥린·조 노세라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1만7천원

얼마 전 반(反)월가 시위가 전세계를 휩쓸었다. 도대체 왜 세계의 젊은이들은 월가에 분노하고 있을까. 최근 번역된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는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련자들에 대한 방대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통해 30여 년간 월가가 재앙을 향해 걸어온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 보면 위기의 시작은 어쩌면 선의(善意)에서 비롯됐다.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일이 이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주택보유율이 떨어지자 클린턴 행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1년 "향후 6년간 주택보유 가구수를 8백만 가구 늘리겠다"며 "주택을 구매할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융전략"을 옹호했다. 2008년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본격 등장하게 된 계기다.

'서브프라임'은 수입 증빙서류가 없고 부채가 많은 고객이 대상이다. 클린턴의 발언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서브프라임 대출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대출업체들은 대출을 남발했고,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빌려줬다. 월가는 가장 위험한 대신 가장 기대수익률이 높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에 열을 올렸다.

범죄는 아니나 부도덕한 '폭탄돌리기' 재앙

돈이 들끓는 곳엔 탐욕과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벌금을 매기는 계약서까지 강요했다. 신용평가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사에 좋은 등급을 매겨줄 것을 협박하다시피했다. 이런 경쟁 속에 무디스는 급성장, 2000~2007년 주가는 3백40퍼센트나 올랐다. 그렇지만 폭탄 돌리기가 영원할 수는 없는 일. 2007년 9월 메릴린치 CEO 스탠리 오닐이 리스크 매니저 존 브라이트를 만나 나눴다는 대화는 월가의 무한속도전의 마지막 풍경을 잘 보여준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은 적 없이 뒷방에 내몰렸던 리스크 매니저에게 오닐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물었다. "60억 달러.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답했던 브라이트는 "그 순간 오닐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에필로그에서 "금융위기 동안 벌어진 상당수의 일들은 비도덕적이고, 부당하고, 비겁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행동이었지만 엄밀히 말해 범죄는 아니었다"며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새로운 법률은 불공정을 시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월스트리트에 도덕적 목적의식을 심어 주지도 못할 것이다"고 말한다. G

글·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새로 나온 책

서울, 성밖을 나서다

이현군 지음 | 청어람미디어 펴냄 | 1만3천8백원

우리는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역사지리학자인 저자가 도보여행을 통해 찾아낸 '살아있는 서울 역사지리 교과서'다.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광복을 거쳐 현재 서울이 되기까지의 서울의 변화를 추적한다. 옛 길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전체 지도를 그리는 법을 알려주고 문화역사도시로서의 서울의 가치, 미래를 그려본다. 저자는 옛 지도를 펼쳐놓고 강의하듯 쉽고 생동감 있게 서울의 모습을 전한다.

뉴욕에서 예술 찾기

조이한 지음 | 현암사 펴냄 | 1만6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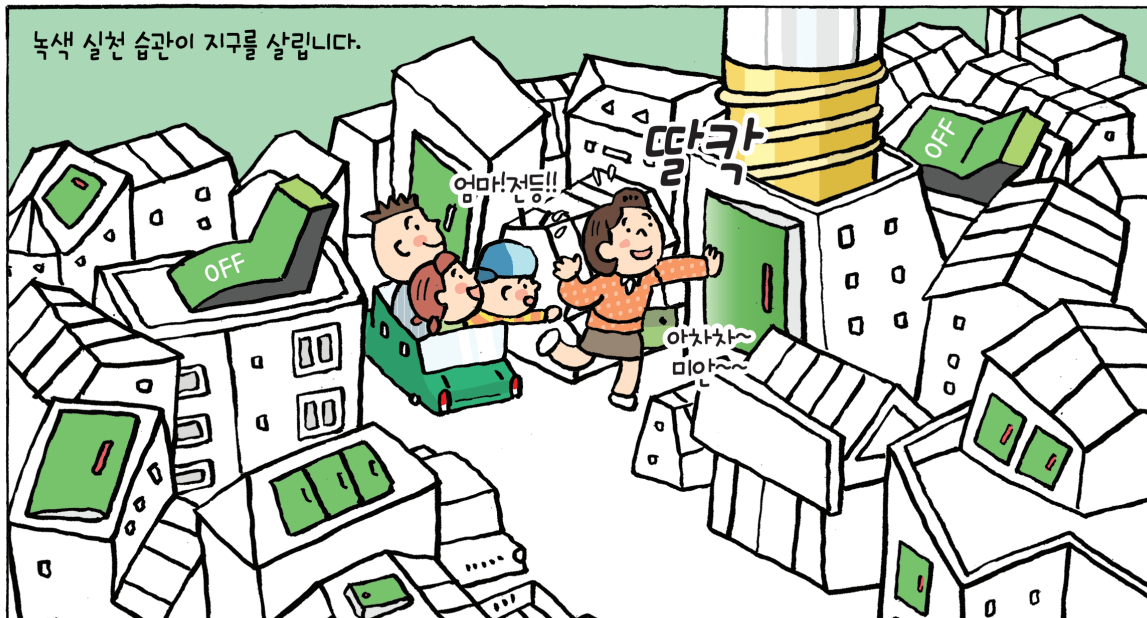
이 책은 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의 예술'에 대한 에세이다. 여성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조이한은 〈베를린, 젊은 예술가들의 천국〉에 이어 뉴욕을 선택했다. 뉴욕을 여행하는 내내 미술관에서 살았다. 저자는 작품이 만들어진 상황과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작가를 탐구했다. 독자가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최영미 지음 | 이순 펴냄 | 1만3천원

최영미가 2년 만에 축구 에세이집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축구 마니아다. 시집과 소설 출간을 무한정 미룰 정도로 저자의 축구 앓이는 지독했다. 저자는 말한다. "축구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건진 최상의 것이다." 이 책은 2002년 월드컵부터 2011년 챔피언스리그까지 지난 10년간 저자를 사로잡아 온 축구에 대한 열정의 기록을 담았다.

기적을 만드는 습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불필요한 조명은 꺼주세요. 지구가 밝아집니다.

청사초롱 3천 개 터널 청계천의 밤을 밝힌다

서울관광마케팅

서울등축제에서는 세계 20여 개국 소품 등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해외초청등을 함께 선보인다.

축제 **서울등축제** 청계천이 아름다운 등으로 수놓인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서울등축제는 '등으로 보는 서울 옛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전시구간이 지난해에 비해 1.5배 확장돼 더욱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3천 개의 청사초롱이 밝히는 등터널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제례악' 등을 전시한다.

일시 11월 4~20일 **장소** 서울 청계천 **문의** 02-2171-2070

전시 **그린시티위크** 그린시티위크는 공공디자인전시회, 차세대 공공·환경시설산업전,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기후변화방재산업전 및 한국건축산업대전 등을 포함한 도시 관련 종합전시회다. 기후방재산업전에서는 재난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에서는 친환경적인 빌딩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일시 10월 27~30일 **장소** 코엑스 **문의** 02-6000-1459

공연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발레 오네긴은 자유분방하고 오만한 남자 '오네긴'과 순진한 소녀 '타티아나'의 엇갈린 사랑이 주요 테마다. 푸시킨 소설에 담긴 문학성과 차이코프스키의 서정적인 음악이 어울려 드라마 발레로 탄생했다. 드라마 발레는 기존 발레의 소통수단인 팬터마임이 없다. 그 대신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표정이나 미세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원서보다 극적 요소가 한층 더 가미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11월 12~19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70-7124-1737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여우야 뭐하니	전쟁기념관 문화극장	10월 30일까지	02-797-7608
카르마	카르마 전용관	10월 31일까지	02-336-1289
페페의 꿈	소극장 오유	11월 6일까지	02-584-9039
폴링 포 이브	충무아트홀	11월 13일까지	1577-3363
연극			
그남자 그여자	아츠플레이씨어터	10월 30일까지	1577-5878
뉴보잉보잉	대학로 두레홀	10월 30일까지	02-741-5978
내 남자의 혈액형	아츠플레이씨어터	10월 31일까지	1577-5878
아메리카노	훈아트홀	10월 31일까지	02-747-3066
배고파6	대학로 배고파 씨어터	10월 30일까지	010-3301-3171
연극 여행	대학로 미아트홀	10월 31일까지	02-747-7407
콘서트			
정재형의 아베끄 피아노	성남아트센터	10월 28일	031-783-8000
위드 인디 시리즈 -심수봉&킹스턴루디스카	마포아트센터	10월 29일	02-3274-8600
잼프로젝트 내한공연	악스코리아	10월 29일	02-324-3814
10월의 눈내리는 마을	연세대 노천극장	10월 29~30일	1577-3363
유진박 콘서트	SH아트홀	10월 29~30일	02-2182-5541
영화음악 음악영화	LIG아트홀	10월 27~29일	1544-3922
클래식/오페라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예술의전당	10월 29일	1577-5266
20세기의 이야기	구로아트밸리	10월 29일	02-2029-1700
르네 야콥스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10월 30일	02-2220-1512
르 트라비아타	금나래아트홀	11월 1~2일	070-7517-6208
무용			
순간	대학로 예술극장	10월 27~29일	02-3775-3880
신 처용	대학로 예술극장	10월 27~30일	02-704-6420
블랙박스	동탄복합문화센터	10월 29일	1588-5234

10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0월 9일~10월 15일)

곡명	가수
1 Open Arms (Feat. 크리스티나)	울랄라세션
2 사랑과 우정 사이 (with 김연우)	김경호
3 Poker Face (Lady GaGa)	투개월
4 동경소녀	버스커 버스커
5 여우야	투개월
6 연애시대 (Narr. 한효주)	이승기
7 놈들이 온다	휘성
8 달의 몰락	울랄라세션
9 Airbag (Feat. 나얼)	타블로
10 짠해 (Cheerz)	Simon D.

달리기의 가장 큰 영광은?

글과 그림 · 최영순

하고 싶은 일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여행 원칙이며 내 인생의 대원칙이도 하다. – 한비야(여행가)

트로트와 인디음악의 '퓨전 공감'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갈등 국면이 있다. 대치, 대립, 반목, 충돌은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갈등 관련 언어들이다. 구체적으로 남북대립, 동서갈등, 빈부격차, 좌우충돌이 있다. 이것들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잠재적 갈등 상황은 아마도 '세대갈등'일 것이다. 모든 분야에 걸쳐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차이와 대립이 심각하다.

음악의 중요성이 여기서 대두된다. 일상과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쉼을 제공하는 음악은 세대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세대 차이의 극복에 절대적으로 유용하다.

취향이 달라 '갈라진 세대'를 섞을 음악이 필요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젊은이들은 결코 어른들의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세시봉 음악에 잠깐 귀를 기울였을 뿐이지 신세대 다수가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의 노래를 다운로드받아 열광적으로 청취하는 단계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트로트 음악은 엄연히 50대 이상의 전유물이다.

어른들은 댄스를 전면적으로 내건 아이돌 그룹 음악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하고 인디 밴드 음악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꺼린다. 젊은이들 음악 따로, 어른들 음악 따로다. 퓨전되어야 할 음악마저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형국이다. 음악마저 다르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할 리 없다.

'흑기사'라는 트로트를 부르는 젊은 가수 태현은 스스로 '트롯돌'을 표방한다.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뜻이다. 젊은 친구가 어른들의 음악인 트로트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세대분리를 넘어서려는 점에서 그의 접근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수년 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가 'T(트로트)'라는 프로젝트 팀을 꾸려 트로트 기운이 완연한 '로꾸거'를 발표하고 빅뱅의 대성이 '날 봐 귀순'을 부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서울 마포아트센터의 '위드 인디 시리즈–한국 대중음악의 여왕들'도 눈여겨볼 공연기획이다. 이 공연에서 트로트의 별인 주현미, 김수희, 심수봉은 각각 인디 밴드인 '국카스텐', '나티', '킹스턴 루디스카'와 함께 무대에 선다. 트로트와 인디는 음악 스타일은 물론 세대적으로도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그 시도가 과감하다.

동방신기가 1980년대 그룹 '다섯 손가락'의 노래 '풍선'을 부르고 빅뱅이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재해석한 리메이크 바람도 의도적 상업화가 아니라면 격려해야 할 흐름이다. 잘될 경우 부모 세대와 자식이 음악적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떠올릴 수 있다. 어른과 젊은 세대가 같이 콘서트 장에 오는 장면은 늘어나야 하고 음악계는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직은 멀다. 워낙 오랫동안 수요층이 나뉘어 있었던 탓에 퓨전은커녕 물리적 조합마저 생경하게 느껴진다. 양질의 트로트는 젊은 세대도 좋아할 것이고, 잘 만든 인디 음악에는 어른들도 반응할 것이다. 다음의 음악트렌드를 '세대공감'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 또한 좋은 음악 만들기다. 음악계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조선DB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참여 경품이벤트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면

엑센트, 모닝, 태블릿 PC 등 경품이 와르르~

1 현대차 HYUNDAI

엑센트 2대, 아이패드 등

http://www.hyundai.com

현대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2 기아차 KIA

모닝 1대, 갤럭시 탭 등

http://www.kia.co.kr

기아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3 KT kt

태블릿 PC 7명 등

http://jeju.olleh.com

이벤트 사이트에서 투표하면 응모완료

4 패밀리마트 Family Mart

모바일 상품권(1,000원) 5천명

http://www.familymart.co.kr

패밀리마트 이벤트 게시판 참고

5 스포츠토토 toto

제주왕복항공권 5명 등

http://www.sportstoto.co.kr

스포츠토토 이벤트 게시판 참고

6 제주관광공사

제주왕복항공권 10명 등

http://www.ijto.or.kr

제주관광공사 이벤트 게시판 참고

지금 바로! 001-1588-7715를 눌러 주세요.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150원)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180원)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깊고 푸르른 우리江
자연을 닮은 16개 보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강 이포보(경기도 여주군). 유려한 조형미가 푸른 강물과 대비되어 더욱 아름답다. 사진 · 조선DB